(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4 1982년 2월1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February10, 1982

FEB 1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빗나간 쌀전쟁

광고주들 압력 문제화

신문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또다시 교민사회의 화제로 등장했다.
지난해 가을 한국계 여행사들이 본지의 여행사 특집기사를 둘러싸고 . 단결해서 본지에 압력을 가해온데 이어, 이번에는 쌀값문제로 삼복, 서울, 한밭, 제일 식품점과 대항해온 팬아시아및 한국식품계열이 화살의 방향을 신문사에 돌려 광고주로서의 압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기사의 내용에 불만, 항의하는 사례는 간혹 있었으나 광고내용에 대해 광고를 게재한 신문을 공개적으로 헐뜯는 일은 거의 없었다.

지난 1월21일 팬·아시아 식품의 쌀값인하 광고로시작된 일부식품점간 가격및 시장확보 경쟁에서 상대업자에 대한 인신공격등 감정상의 반목양상을 노정한 토론토 한국식품업계중 당사자의 하나인 팬·아시아 식품도매상은 최근 광고(본보 2월1일자)에서 엉뚱하게 본보를 비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않고 모략적 광고를 실어준 한국일보에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고 밝혔다.

이 "해명서"는 이보다앞서 1월25일자 발표된 삼복, 한밭, 서울식품등 3개 경쟁업자들의 광고에 대한답변형식으로 나온 것으로 "당신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국보쌀을…" 하는 등의 내용이면서도 서두에는 신문에 대한 해명 형식을 취해 본사와 식품업자를 혼동했다.

팬아시아 이창복 사장은 본사가"해명서 "를 게재할때 한자도 고치지 말것을 요구, 본사는 광고주의 의도대로 본사를 비난하는 내용까지 한자도 빼지않고 실었다. 그러나 팬아시아는 반페이지 크기의 쌀값등상품광고에관한 광고는 본보에 게재의뢰하기를 거부했다. 이 광고는 다른 교포신문에는 해명서와함께 게재되었다.

이사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본사가 식품업자간의 "싸움"을 시키려는 의도에서 반대업자들의 1월25 일자 광고를 게재했다고 주장 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반광고 게재를거부한 것이다.

본사는 애초 서울, 한밭, 삼복계의 광고를 접수했을때 상품광고만을 신기를종용했고, 부득이 성명서를실을경우 광고문중에서 과격한 단어를 뺄것등을 강력히 요구, 결국"이창복"이란 풀네임을"이모씨"로 고치도록 했으며, "횡령", "사기"등의 단정적이고 범죄적인 용어를 재거시킨후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이사장은 이에대해"광고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말했는데도 알아보지도않고 게재했느냐?"고 계속 본사를 비난했다.

본사측은 이사장에게 (1)신문사는 업자의 광고를 거부할 권리가없다. (2)신문사가 광고내용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3)이사장이 경쟁업자를 비난하는 광고를 의뢰했을때도 본사가 "사실여부를 알아봐야한다"는 이유로 게재를 거절했어야 하는가?고 말했다.

본사측은"신문사가 아무 광고든 다 접수하는것은아니지만 그렇다고해도 모든 광고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따져볼수는 없다. 〈뉴욕·타임스〉가 김일성의 광고를 낼때 그것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내주는가?"라는 점을 설명했다.

본사는 이사장이 업자간 간의"싸움"에 본사를 부당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은 광고주로서 신문사에 대한 압력으로 간주, 부당한 압력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토론토소재 한국계 여행사들은 작년도 본사의 여행시리즈에 불만, 1월들어 모든광고를 일제히 취소했고, 한국여행사(대표 성낙윤)등몇몇 여행사는 본보의 광고를 취소하는한편, 본보를향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광고주로서의 압력을 과시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8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서울시 미화위해 일본서 나무도입

(서울 8일=연합)서울시를 단장하기 위해 일본 카누마시에서 사쯔끼나무5만그루가 도입된다.

현재 서울을 방문중인가누마시의 시장이 사쯔끼나무를 기증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온 이후 서울시 당국은 나무 수송계획을 세워왔다.

사쯔끼나무는 가누마시에서는 아주 흔한 아잘레아나무의 일종이다.

이재관공보관 영전 김의기영사 전보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3년간 캐나다주재 한국대사관 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이재관씨나 본국 해외공보관기획부장으로 영전, 오는가 12일 귀국한다.

한편 대사관의 김의기영사는 용단 주재 대사관으로 전보되어 20일께 임지로 떠난다.

이 공보관은 캐나다근무중 홍보활동, 한국문화소개등에 크게 기여했다. 후임은 미정.

제5회 수학경시 교포고교생 대상

토론토한인대학생회(회장 천명기)는 오는 20일(토) 상오 11시 토론토 대학(60 St. George St.) McLennan 물리실험실(Room 102)에서 교포고교생 상대로 제5회 수학경시대회를 실시한다.

한인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주니어부(9~11학년)시니어부(12~13학년)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 경시대회 입상자에게는 장학금, 상패, 부상등이 주어진다.

연락처 ☎247-2998(김중수), 498-6380(임정혁)

소가죽 원료 유망 수출품

(서울3일=연합)"개껌"(개를위한 츄잉껌)이 한국수출품목의 하나로 등장했

"개장난감", 혹은"생가죽개씹기"라고 불리우는 개껌은 소의내부가죽이 원료이며, 씹을때 고기냄새가나도록 엄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

이같은 신기한 상품을만드는 미래무역회사는 작년에 해외수출로 8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수출업자는 개껌은 아무 유해한 요소가 없으며, 개가 삼켜도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는 개껌이 판매되지않고 있으며, 미래무역을 포함, 4개의 한국무역회사가 개껌을 제도수출한다. 이들의 연간 총 수출량은 3백만달러에 이른다.

개껌은 유망한 수출품목으로 등장했으며 서방국가들이 주요시장이다.

◇개조되기전의 오스코스회사 제품 J-2770카고트럭. 리오카 회사는 이트럭이 농사장비로 쓰여질 것이라고 미국무성을 속여 리비아로 수출, 소련제 리비아군 탱크 운반차량으로 개조했다.

리비아에 밀무역된트럭 탱크견인차로

토론토가 전진기지 미국무성 금수품목

토론토의 고급주택가 로즈데일지역의 한 대저택이 미국무성의 눈을 속여 수억달러어치의 미제 군사장비를 리비아에 팔아먹는 본거지로 사용돼왔다.

이 군비판매사업은 캐슬프랭크 로드 34번지의 방 52개짜리 주택의 주인 로날드·패스와 자크린느·패스 부부가 주모자로 이들은리비아의 트리폴리까지 미국산 대형트럭을 수송시켜그곳에서 20여명의 캐네디언 기술자들로 하여금 소련제 탱크 운반용 차량으로 개조시켜왔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이들이 리비아군에 넘긴 트럭은 모두 400여대이다.

표면상으로는 스위스에 등록된 트럭수출회사 리오카S.A.회사는 애초에 리비아 농무성의 요구에 따라 농업용으로 쓰인다는조건으로 미 국무성의 수출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 트럭이 농사용이 아니라 미정부가수출을 금지한 군사장비로판매됐음이 밝혀진 것은 이들 트럭의 도착지가 리비아군본부로 돼있음이 드러난 때문이다.

리오카·S.A.회사는 〈트리폴리의 리비아 아랍군본부〉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비밀이 발각될까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았었고 이 편지가 토론토·스타지에 입수됨으로써 폭로된 것이다.

미국무성의 톰·호만대변인은 3일 "무엇이든지 리비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출금지시켰다"고 확인했다.

캐나다 외무성은 3일현재까지 캐나다법에는 리비아에 군사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범법행위가 되는지는 조사해본 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아에 도착된 트럭은 트리폴리에서 캐네디언 기술자에 의해 군장비로 개조됐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25시간의 실내강의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3번의 운전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개업인사
김명숙회계사무소
(KIM'S ASSOCIATES)
안녕하십니까. 닥아오는 TAX 시즌에 대비해서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자 2월1일부터 아래와같이 사무실을 마련 했읍니다.
Tax Return, Bookkeeping, Accounting등 제반회계 업무와 세무및 경영상담등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왕림하시와 상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약력 : 19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대학교 회계학 전공
5년간의 C·A. Firm근무
현재 C.G.A. Undergraduate(5th Level)
장소 : 484 Bloor St. W. (강찬영변호사 사무실 내)
전화 : (B) 537-3171, (R)669-2710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시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안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모델 살해범 징역25년
정신상태 이상 없어

온타리오주 대법원은 5일 패션 모델 쉐릴·가드너를 때려 숨지게 한 랄프·파워에 25년 징역형과 가출옥금지형을 내렸다.

랄프·파워는 지난해 7월 벨·캐나다직원으로 가장, 토론토 이사벨라·스트릿의 아파트에 침입, 쉐릴양을 강간한뒤 가지고 있던 망치로 때려 숨지게했다.

이날 재판중 범인 파워가 범행당시 정신이상이었는지 여부가 관심사였으나 배심원들은 증언 청취결과 그가 정상적이었다고 결론지웠다.

이날 재판에서 그의 가족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디·아민같은 무자비한 폭군의 성격" 이었다고 말했다.

◇이상성격자의 행패에 희생된 모델 쉐릴·가드너양.

한국TV 〈을화〉 방영
영어자막넣은 한국영화

한국TV는 한국KBS방송이 캐나다 교민을 위해 특별 제작한 TV극 〈을화〉의 비데오·테입을 4일부터 10분씩 연속방영한다.

김동리씨 소설을 극화한 〈을화〉는 KBS가 캐나다 실정에 맞춰 한국의 민속을 소개하며 전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영어자막도 넣었다.

무당가족을 중심으로 토속종교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다룬 이 영화의 주인공역은 배우 장미희가 맡았다.

한국TV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와 금요일 밤11시, 월요일 낮1시에 각각 MTV 채널 47,케이블 4로 방영되고 금, 월요일은 재방영이다.

문화·무역·안보 쌍무관계 굳혀
한·미수교 100돌 메시지

(워싱턴 6일=연합) 미상원외교위원회 촬스·퍼시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1882년5월22일 양국의 정식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문화, 무역, 안보부문에서 쌍무관계를 공고히 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인에게 보내는 특별메시지에서 일리노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퍼시는 34,000명의 젊은 미국청년들이 한국전쟁(50~53 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남한을 돕다가 희생했다며 이것이 양국간 강력한 안보상의 결속을 증진시키는요소라고 말했다.

양국간 외교수립 100 주년을 기념하는 이 메시지는 작년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의 안보결속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경제발달을 경제기적 이라고 찬사한 퍼시는 한국은 지금 미국의 9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4번째로 큰 미농산물 수입국이라고 말했다.

퍼시는 81년3월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때 미국대표를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도꾜호텔 화재
한국인등 32명 참사

8일새벽 도꾜시내 뉴·재팬호텔에서 불이나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20여명이부상했다.

일본에서는 2차대전후최대의 호텔참사로 꼽힐 이번 화재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한국, 중국사람으로 알려졌다.

무사히 탈출한것으로 전해진 캐나다인들은 모두 뱅쿠버 시민으로 비지니스차 도쿄를 방문 중이었다.

지은지 20년인 뉴재팬호텔의 3층이상에는 스프링쿨러나 화재경보기가 없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불은 10층에서 일어나계속 위로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도꾜 뉴재팬호텔화재. 1명의 투숙객이 내의바람으로 기둥을 타고 극적탈출을 꾀하고 있다.

한국주부 결혼관 변화
자녀수2명·자기가배우자 선택

(서울 8일=연합)이화여자대학교의 이동원교수(사회학)가 작년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가정주부들은 결혼관, 이상적인 자녀수및 자녀의 배우자 선택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이 밝혀졌다.

275명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교수는조사결과를 58년 그녀의 동료가 조사한 것과 비교 검토했다.

58년에 조사된 여성중대부분은 이상적 자녀수는 5명이며, 반수이상이 배우자(남편)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그들 부모의 의사를 따르고, 44.6%가 산아제한에 반대했다.

81년에 조사된 여성 의 45.8%가 이상적 자녀수를 2명이라고 믿고 있으며, 3명이라고 생각한 여성은34%이다. 32.8%의 여성이 그들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했으며, 산아제한에 반대하는 여성은 오직 6.2%였다.

자녀를 가지는 중요성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년전의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그들 남편들이 축첩하는 것을 인종으로 견디어 왔거나 어린아이를 입양하는방법을 취했으나, 81년도 에는 여성들이 종래의 그러한 방법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녀 없이 지내겠다고 말했다.

결혼 생활중 불화의 원인들로 58년도에는 경제적 이유(56.5%)가 가장 컸으나, 최근에는 성격의 부조화(31.3%)가 단연 톱이고, 경제적이유(25.1%), 자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13.9%)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조사된 여성중 47%가 그들의 남편의 직업에 만족을 표시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현재의 직업에서 떠난다면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으로45.2%가 「전문직」, 21.4%는 공무원, 19.1%가 「사무직 근로자」, 7.1%는 「세일즈맨」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58년 조사 응답자들의 반응과 정확히 상반되는 것이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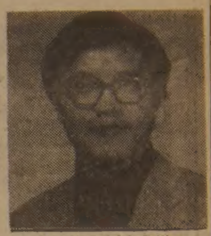
교 민 동 정

◆김봉훈(전파사 경영) = 킬×던다스서 성업중인 Stereo King에서 전축, 라디오, 및 비데오도 취급, 교민에게는 특별 봉사한다고. (전화 776-4770)

◆조의문(Marvin-Starr 세일즈맨)=스카보로지 역의 G.M딜러 마빈.스타(마캄×애그린톤)에 취직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활약중이다. 취급종류는 폰티악, 뷰익, 밴트럭등. (전화 264-2311)

〈인터뷰〉

한인교향악단의
지휘자 김승순씨를 찾아



◇지휘자 김승순씨.

예술적 창조성 중요
문화적 유산 전달이 목적

"흔히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케스트라를 만든 것같이 생각하나 정작 그런목적이라면 개인적, 가정적 고달픔이 너무커요."

토론토한인오케스트라의 산모이자 지휘자 김승순씨의 말이다.

그가 표현한 개인적 가정적 희생이란 말은 음악교사로 일하는 학교가 토론토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온타리오주 오웬·사운드로 주말마다 토론토를 왕복해야 하는 고충도 포함된다. 전가족이 함께 두 도시를 들락날락하다 81년말부터는 아예 가족을 토론토에 옮겼다. 김씨 혼자서 주중에는 오웬· 사운드에서, 주말이면 토론토에서 매주 토요일 하오3 시부터 6시까지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습에 참가한다.

한인오케스트라는 지난 17일 새해들어 첫연습을 갖고 올해중 있을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첼리스트 정명화, 바이올린의 백형선과의 협연에 대비하고 있다.

지휘자 김승순씨가 음악에 몸담기 시작한 것은 성악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어머니는 나이 40살에 이태리로 성악공부하러 떠난 극성으로, 덕분에 김씨는 찬송가나 웬만한 오페라의 아리아는 어렸을때부터 악보 없어 외다시피했다.

성악가 이인범씨에 사사, 서울음대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시절에는 성악보다 작곡에 더 흥미있어 원로 작곡가 김성태씨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고 틈틈이 첼로와 더블·베이스를 익혀 지금도 오웬사운드·오케스트라에서 첼로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김씨는 예술활동을 세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둘째, 자신이 즐기기 위한 것, 세째, 완전한 창조적 예술활동. 그는 남에게 보이는 것도 자신이 즐기는 것도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술의 창조성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김영욱이나 백건우같은 대가들과 협연, 또 1년에 4차례나 공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무슨 일이건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인오케스트라가 첫해에 무리하게라도 대가들과 협연하지 않았더라면 단원들끼리는 서로 즐길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비전도 없이 음악적으로 자라지를 못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세번째의 예술활동, 즉 창조적인 것이 되지를 못했을 거예요."

한인오케스트라를 구성한 것은 3년전부터 학교오케스트라에서 캐네디언학생들과 씨름하면서 만약 이들이 한국인들이었다면 얼마나 더 보람이 될까하는 느낌이 강해졌고, 때마침 토론토의 한국인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해 달라는 요청이 와 차츰 한인코뮤니티와의 접촉기회가 생기기 시작, 오케스트라 구성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악보읽기도 어려워하던 어린 단원들이이제는 악보읽기 보다는 테크닉 문제로 어떻게 보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까에 애쓰고 있으니 1년간 크게자란 셈이다.

지휘자로서의 고충은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의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나 음악회가 끝날때마다 크고작은 에피소드가 많다.

한예로 클라리넷에는 Bb조와 A조의 두가지 종류가있다. Bb은 크기가 조금작고, 소리가 예민하고가는반면, A조는 소리가 풍부하다. 재정이 넉넉한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둘다 구비해서 바꾸어가며 그때그때 맞는 악기로 소리를 내지만, 한인오케스트라의 단원중에는 아직도 A 조악기밖에 갖고있지 못해 Bb가 내는 소리와 음역을 A조악기로 쫓아가기에 더한층테크닉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도저히 못하겠다던 단원들이 결국에는 악조건에서도 마침내 바라던소리를 내주면 연습을 지켜보는 전 오케스트라 식구들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미국으로 유학했던 김씨가 캐나다에 이민오게 된 것은 서울음대 동창인 부인 김종옥씨의 동생 첼리스트 김풍자씨가 오웬·사운드에 살고 있은 것이 계기가 된다.

김씨는 교사자격증을 따기위해 한여름에 4과목을 수강, 논문 8개를쓰고세미나를 3개나 듣는등 잠을 거의 못자면서 기악전공자격증까지 획득, 지금은 고교교사급으로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있다.

"오케스트라가 과연 이민 코뮤니티에 어떤 공헌을 하느냐는 것은 문화적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자는데 의의를 찾을수 있다. 한국사람의 예술에의 자세가 얼마나 적극적이며 우수한가하는 것을 이곳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계기만이라도 된다면 이민 1·세로서의 공헌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고 김씨는 말한다.

김승순씨의 열의대로 오케스트라가 커 나가자면결국 한인코뮤니티 자체가그만큼 자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런던심포니, 베를린 심포니, 뉴욕 필하모니가 세계적 대 오케스트라로 큰 것은 그만큼그 도시전체의 문화적 수준이 높기때문이다.

(조미래 기자)

◇첼리스트 정명화등과의 협연을 앞두고 연습에 열을올리는 한인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지휘자 김승순씨.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29)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번역

18. 오 호 토

우리가 앙쿠니 레이크에서 지내는 동안과 쿠이강의 서북쪽으로 여행하는기간 내내 오호토는 불완전한 사람처럼 행동했었다. 우리 두 백인은 텐트를 쳤던 빈자리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돌무덤을 보고 마음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우리 둘보다도 그는 더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사슴을 한마리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지나 다녔던 발자국만 발견한것은 오호토에게는 그것이 사슴이 이 땅에서 잠시 없어졌다고 생각되는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주었던 것같다. 그는 이할미우트의 지옥 즉 사슴 한마리없고, 사슴이오지않는 가장 무시무시한지옥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할미우트의 지옥과 천당은 이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천당은 인간이 사슴을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오호토가 앙쿠니 지역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이할미우트가 말하던 지옥일것이라고 혼동했던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동물이 전혀 살지않는 그곳의 인상이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그에게 미쳤던 것이다.

우리들도 그때는 마치현실이 우리들로부터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느꼈다. 우리 두 백인의 지식 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빈 공간에 대하여 점점 중압감을 의식하고 초조해짐은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쪽과 북쪽으로 탐험여행을 하는 동안 오호토에게 일어났던 두가지의 큰 쇼크를 설명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쿠이강을 발견하고 이 강을 따라 여행하는 도중 오호토의 얼굴에 큰 종기가 났다. 종기는 날마다 커지고 시뻘겋게 부어올라왔지만 그는 자기의우울한 생각에 파묻혀 있어서 별로 아프다는 말을 안했 다. 나는 종기에 대해서 서너번 언급을 했는데 4일째 되는날 그것은너무 부어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침으로 찔러 고름을 짜 냈는데도 가라앉지를 않았다. 처음에 나는 그 종기가 음식때문에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오호토는 그렇게 장기간 동안 자기의 주식인 고기를 먹지 못하고 가공한 백인들의 음식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쿠이강 꼭대기에 도착했을 무렵 그 종기는 한껏 성이 나 있었고 참을성이 많은 오호토도 통증을 참기 어려운듯 보였다. 그는 식욕을 잃어버렸는데 이 증세는 이 세상에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할미우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다.

우리들은 쿠이강이 이름도 없는 호수와 갈라지는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캠프를 치고 거기서 오호토의종기가 아물때까지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는 우리의 결정에 별로 흥미 다는 듯이 마지못해 따라왔다. 그는 작은 여행용텐트를 쳐놓고 기어들어가더니 아주 어두워질 때까지 죽은듯이 아무 소리가 없었다.

우리 모두는 빈 창자로 힘든 여행을 오랫동안 한 후였기 때문에 지쳐있었고 나는 내 모기장안으로 기어 들어가자마자 녹아 떨어졌다.

자정에 가까워졌을때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비명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것은 사람의 비명소리였는데 단지 아픔을 참지 못해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비명소리는 처참한공포로인한 높은 괴성으로까닭을 알아보기도 전에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나는 누운채로 몇분동안 그대로 있었으나 비명소리는 너무나 날카로워져서가만히 있을수가 없었다. 앤디도 일어나 앉아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하나님 맙소사! 어찌된 일이요?"

(계속)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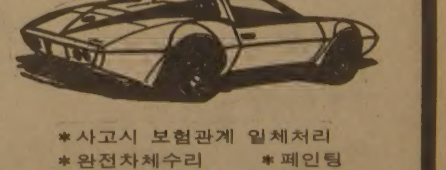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 하키카드 입하
* GLAD-GARBAGE BAG(24×10) $35.59
* 초코렛(오·헨리. 체리·브랏썸등) $9.49
* DARE 캔디(캔디 백)12PK $9.99.
* LEAF BALL껌 1FREE+10BOX
* PEPPERETTES $14.99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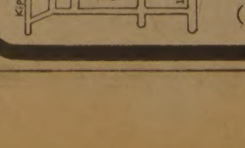
L&K
AUTO BODY

완전바디와 완전정비
완벽한 기술과 친절한 써비스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차체수리 * 페인팅
* 사고차량 토잉알선

346 Munster Ave. Toronto



오 세 호
(B)231-6951
(R)742-5406

대학생 수학실력 엉망

수학전공생 반이상이 고교수학도 미달

"왜 캐나다 대학생 들은 「더하기」를 못하는가?"

이것은 전국에 걸쳐 수학교수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지난 4년간 알버타대학의 수학코스를 택한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고교수학을 기초로 낸 수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선다형 25문제 시험에 이들의 평균점수는 매년 100% 만점에 38%주위를 맴돌았다.

노바·스코샤주 울프빌에 소재한 아카디아대학 프레드·칩맨 교수는 수학코스를 택한 1학년학생들의 15%~20%가 분수덧셈이나 기초적인 대수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말하며 1학년때 이같은 기본적인 분수덧셈을 못하면 그들은 끝장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의 욕대학은 어른들과, 고교에서 수학 프로그램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수년간 수학교정반을 설치 운영했다. 수학교정반을 담당한 교수들은 점점 많은 수의 1학년학생들이 이같은 교정프로그램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 수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지식도 결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수학부 위원장 게네·덴젤이 말했다.

덴젤교수는 전국적으로 인기학부인 경영학(Business)과 상학(Commerce) 부의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전공이 수학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고교시절에 알지 못하고 진학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학생들은 제대로 학교를 마치기가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할리팩스의 마운트·세인트·빈센트대학 찰스에드먼즈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10~15년전보다 1학년 수학을 위한 예비지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력테스트(Student Achievement Test)에서 학생들의 수학 부문의 점수가 60년대말 가장 높았고, 그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알버타대학의 이반·백스교수는 주정부가 진작부터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 고교교과과정 계획담당관들 에게까지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Curriculum)의 수준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알버타주는 학생들이쉽게 공부할 수 있게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그는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고 덧붙였다.

백스는 수학기초가 부족한 상당수의 1학년생들이 이로 인해 좌절을 당하고, 그의 사무실에서 눈물짓는 광경을 수없이 목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4년간 수학교정 프로그램을 실시, 이 프로그램을 택한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어느정도 향상된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수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6명중 1명비례로 이 프로그램을 택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이들중 32%~45%가 휴학하거나 자퇴해 버린다.

백스교수는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기초가 부족한것에 대해 요즈음에는 그들 부모세대때보다 젊은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많이 생겨 학생들이 더 이상 숙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루빅스·큐브 맞추기餘念없는猿公

『그것참 어지간히 어렵구먼…』 신비의 육면체 루빅스·큐브를 맞추기에 여념이없는 벵골원숭이。 1백50시간째 요리조리 뜯어맞추기를 계속했지만 한面도 맞추지못했다。

나의 別味

한 주부독자가 이곳에서 자란 2세들을 위해 맵고 짜지않은 동양요리를 부탁해왔다.

이 주부는 특히 탕수육, 나조기, 초밥등의 소개를 원했는데, 이중 탕수육은 2주 전 주부 이정옥씨의 별미로 소개되었으므로 이난에서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요리법은 요리연구가 하숙정씨의 요리법이다.

나조기의 재료는 닭고기 반마리, 계란흰자 1개, 되직한 녹말 반컵, 생강1쪽, 붉은고추 2개, 배추 반쪽잎, 당근 약간, 기름 3TS, 간장 1TS, 대파 반쪽, 물녹말 3TS, 참기름 1TS, 소금, 후추, 조미료, 튀김기름.

만드는 법은 우선 닭을 깨끗이 손질하여 뼈채로 3~4센티미터 길이로 토막낸다.

토막낸 닭에 계란흰자, 되직한 녹말, 생강다진것, 소금, 후추를 넣어 양념하여 버무린 다음 끓는기름에 두번 튀겨낸다.

붉은 고추, 대파는 5센티미터 길이로 트막내고 당근과 배추는 납작하게 썬다.

나조기와 초밥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붉은 고추를 볶다가 야채를 넣고 살짝 볶은후, 물을 붓고 간장으로 색을 낸후, 소금, 후추, 화학조미료로 양념하여 끓기 시작하면 물녹말을 넣어 걸쭉해지면 참기름을 넣는다.

그릇에 튀긴 닭을 담고, 고추, 파등을 넣어 양념한 소스를 부어낸다.

김초밥은 우선 초밥이 필요하고, 그외에 김, 계란, 다진양념고기, 미나리, 생강, 소금, 멸치국물등이 필요하다.

그중 초밥은 우선 쌀밥 3컵을 고실고실하게 짓는다.

식초 4TS, 설탕 2TS, 소금 2TS을 합하여 끓여서 밥위에 붓고 잘 휘저어 섞어놓는다.

신맛을 없애기위해 밥을 부채로 부친다.

만들어진 초밥은 차갑게 식혀놓는다.

그다음, 계란 1개에 멸치국물을 혼합하여 소금, 화학조미료로 양념하여 사각팬에 지져내어, 김발로 눌러놓는다.

김발을 펴놓고 살짝 구운 김을 올려놓은 뒤, 한주먹정도의 초밥을 얇게 펴놓는다.

초밥위에 다진고기, 계란, 미나리등을 얹어 삼면서 말아놓는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⑧

첫 부임(고삿갓)

고마태오(중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내마음 언저리에 스며드는 과거에대한 그리움과아쉬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후회의 감정을 달리는 차창밖으로날려보내며 나는 잠시 기이한 내 인생의 뒷길을 더듬어 봤다.

생각하면 내 인생은 항상 예측못한 인생이었다. 어렸을때 착실한 농군이되자고 마음다짐한후 중학교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농사일에 종사하던 어느날, 나무장사하다 받은 굴욕(「사랑의 지도」제4장, 「달구지의 굴욕」참조)은 나로하여금 고향을떠나 서울에 올라오게 했었다.

서울에서 고학하다 지친 나는 마음에 없던 군대에 입대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나는 군대를 제일싫어했었다. 내 천성적 성격은 규률과 모험과 낭만이있는 군대생활을 좋아하는 편이나 나는 군인을 존경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38선 경비보조원으로서 경험한 남북한 경비대의 잦았던 무장충돌은 나로하여금 군대를 염오케 했다. 단순한 정치적 이념상의 차이로 어제까지 친구였던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우리 민족의 비극 앞에 나만이라도 동족에게총질하는 군인이 되지말자고 결심했었다.

그런데 나는 군대에서, 그것도 해병대에서 6.25전쟁 기간 부상을 두번이나 당하면서까지 전쟁에 용감했던 군인이었다. 나는 충성스러운 군인 이었다고자부한다. 나는 전선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한번은 포탄 파편을맞고 갈비뼈 두대가 부러지고, 가슴 안쪽이 썩어들어가 사형언도까지 받은일이 있었다. 그때 내나이 19세. 나는 억울해 죽을수가 없었다. 19세의 어린 나이로 죽기가 제일 억울했던것은 한 여인과의 사랑과 결혼의 경험없이 죽게되는 것, 이었다.

그러던차에 때마침 한국전쟁에 파견되어온 미국병원선의 혜택으로 재수술을 받고 살아났었다. 그러자또 다시 나는 전선으로 재출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산상륙작전후 그곳에서 만난 아름답고 총명한 아가씨 숙과의 사랑. 나는 숙의 사랑을 하느님이주신 선물로 여겼었다. 병원에서 죽음에 항거하던 나에게, 또한 한 여인과의 사랑을 체험없이 죽게됨을 억울해 하던 나에게 하느님께서숙을 보내주신 것으로 나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숙과의 사랑도 잠시뿐. 나는함흥전선으로, 화천전선으로, 홍천지구 전투로, 토솔산전투로, 김일성고지 전투로, 서부 사천강전선으로 전전하며 전투를 계속했었다.

여기서 나는 상처입은내 조국을 발견했고, 내 민족의 비극을 절실히 체험했었다. 여기서 또한 나는조국과 민족에대한 사랑을배웠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쟁으로 상처입은 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위해 이 한몸 바치자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내 애인 숙과의 사랑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나는 신부가 될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단 한번도 내가 장차신부가 될것이라는 생각을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애인앞에서 나는 신부가 될 것을 작심했던 것이다.

그후 나는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서 꿈엔들 생각해본일이없는 프랑스 유학을 지시받았다. 학장신부의 명령에절대 순종해야할 신학생의몸이었기에 나는 순명의 뜻으로 프랑스 유학을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 나는 도밍고수도회와 접촉을 가졌고, 수사신부가 될 것을 생각했으나 내가 캐나다로 파견되리라고는 예측도 못했었다. 그런데 나는 캐나다에 왔던 것이다. 그리고도밍고수도회에서 일생을 보낼것을 믿고 있었는데, 뜻밖에 내가 그처럼 사랑하던 수도회를 떠나 지금 모래알교구 전입을 위해 기차에 몸을싣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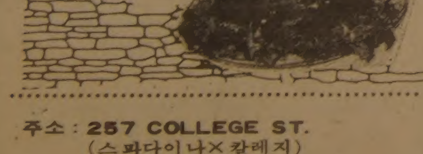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이 모든 사건들은 예상밖의일이 었으며, 항상 내뜻 밖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내 뜻이 아닌 그 어떤 절대자의 뜻에의해 꾸며져 나가는 그러한 내 인생이었다. 이런 것을 세속적으로는 운명이라하고, 종교적으로는 신의 섭리라 하는지….

하여튼 나는 내가 바라고 계획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그러할 것이며, 예측못한 사건들이 또 내 인생을 방향잡아 가리라. 주님께 바친 이 몸, 그분의 섭리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리라! 그분이 부르시는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항상 돌릴것이며, 그분이 이끄시는대로 나는 언제나따라가리라….

내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열마쯤은 슬픈감상에 젖어있을때 나는 김삿갓(金炳淵)을 생각해냈다. 나는 평소에 김삿갓을 존경해왔다. 뛰어난재능을갖고 과거에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홍경래(洪景來)의 난때 반란군에게 항복한 그의 조부의 오명때문에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일생을 방랑시인으로 보낸 김삿갓을 나는 좋아한다. 그는 삿갓을 쓰고조국의 방방곡곡을 방랑하며 풍자와 해학으로 퇴폐되어가는 세상을 개탄하고 저주하며, 또 조소하면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다. 나는 김삿갓에 비유할만한 위인은 못되지만 조국과 민족을위한 사랑때문에 이 우주를 조국삼고 방랑하는심정만은 그와 비슷하다고생각했다. 그래서 김삿갓이란 유행가곡에 즉흥적으로 "고삿갓"이란 가사를 붙여 노래를 불러봤다. 재법 흥이나는듯 했다. 나는 본래 음치라서 노래를 부를줄모르나 김삿갓의 노래만은좋아했다. (계 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京華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MISS KOREA
제7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일 시 : 1982년4월24일(토)
6 : 30P.M. 칵테일
7 : 30 〃 디 너
장 소 : 다운타운 Holiday Inn
주 소 : 89 CHESTNUT ST.
사회자 : 한국저명 연예인
※미인 출전신청 접수중
연락처 : 한 인 회 755－9288
한국일보사 533－2363

주 최 :토론토시구한인회
후원 : 한국일보사

결 의 문

1. 우리는 남북통일을 위해 전두환 대통령께서 1월22일 제의한 통일 헌법제정, 수석대표회담, 개최등을 포함한 평화통일에 관한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2. 우리는 전대통령 1월22일 제안을 북한측이 조속히 수락하여 남북회담개최에 응할것을 촉구한다.

1982년 2월6일

사단법인한국노년회
회 원 일 동

大學졸업생 就職때 教授추천制 강화

筆記위주 止揚 全人평가

오늘 文教部·大學·業界 회의

문교부와 학계、그리고 업계일부에서 현4년제 대학졸업자의 사회진출방식으로 일반화돼있는 공개경쟁 시험대신 대학교수추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그결과가 주목되고있다。4일 문교부에의하면 현재 필기방식위주의 공개취직시험으로는 수험생의 전인적인평가가 어려울뿐더러 대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있기때문에 학계및업계에서 교수추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있다고 전하고 이에관한 구체적인 논의를위해 5일 전국34개종합대학학생처장과 三星、大宇、現代、럭키등 대기업체의 인사부장이 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國營업체·銀行·일반기업등

이날 문교당국자는 기업체의 입사방식으로 교수추천제를 논의하는것은 공무원채용에서 학교추천을 받기로한것과같은 취지이며 국영기업、금융기관의 직원채용은 물론 사정이 허락하는한 사기업의 신규사원채용에서도 수험생을 졸업시킨 대학측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교수추천제에의한 대기업취직이 빠르면내년부터 실시될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라고말했다。

한편 대학관계자들은 이날 5일의 학계·업계공동간담회에서 교수추천제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1차논의될 것이라고 전하고 교수추천제가 실시될수있는 민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교수추천과 필기시험의 비중조정、추천권을 지도교수에 국한할 것인가、아니면 학과장등을 포함、공동추천제로 할것인가등의 사항이 검토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추천제가 확정되기까지는 美、日、유럽등 선진외국의 제도도 광범위하게 참고될것이라고 말하고『이 제도는 잘 운영되는 경우 교권확립은 물론 학원대책에도 다같이 기여하게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관계자들은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추천교수의 자질보장과 공정한 추천을 보장할 제도적장치 그밖에 학내분위기가 정상화돼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잘못운영되는 경우의 부작용은 공개경쟁시험보다 훨씬 더클수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학인들은 지도교수에게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지을 권한을 주는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도교수와 다른의견을 갖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은 물론 교수에대한 학문적 도전까지 위축될 우려가있다고 지적했다。

公務員시험 學校成績반영

高等考試연령 35歲까지로 낮춰

정부는 83년부터 司法시험과 공무원채용시험에 학교성적등 교육 결과를 종합한 학교추천성적을 시험성적에 반영하는 한편、5급행정、외무、기술 고등고시의 應試자격上限연령을 현재의 40세에서 35세로 낮출 계획이다。이와함께 5급과 사법시험에만 적용하던 면접시험을 올해부터는 7、9급에까지 확대하고 면접시험방식도 개별면접에서 그룹토의등 집단면접으로 바꾸고 면접시간도 연장키로했다。

총무처는 4일 공무원채용 국가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현재의 理論과목중심에서 담당업무와 직결되는 實務과목을 시험과목으로 부과하고 채용시험의 문제出題에 있어서는 시험때마다 시험위원에게 위촉、出題해온 이제까지의 방식을 지양하여 시험문제를 풀로 미리출제、이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이 선정케할 계획이다。

이改善계획은 또 작년부터 9급에한해 시행해온 지역별모집을 7급에도 확대키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硏究職등 特殊職을 선발할경우 해당學歷이나 專攻을가진 사람만이 응시할수있도록 하고있다。

또 7급의 行政職지역별모집은 서울、仁川·京畿、江原、忠南北、全南北、大邱·慶北、釜山·慶南、濟州등 8개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9급은 仁川·京畿、大邱·慶北、釜山·慶南으로 각각 나누어 11개지역별로 모집하게된다。

이밖에 5급행정고시는 올해부터 단일시험에서 일반행정、財經、教育、社會등 4개 職類별로 細分해서 모집한다。

총무처관계자는『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인만큼 응시연령 제한이 적용되지않으며 시험문제를 풀로 출제함으로써 문제의 수정보완을 철저히 할수있고 暗記위주에서 이해력과 응용력중심으로 출제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건축認許可 대폭簡素化

7월시행、建築課서 一括처리

오는 7월1일부터 건축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현재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건축허가부서(건축과) 이외의 관청에서 도로점용허가등 23개 인허가를 별도로 받고 立地문제에 관해서는 11군데에서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는등 지역과 건물특성에 따라 34개까지 관련인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등 4개 인허가와 立地문제를 동시처리하고 준공검사도 한꺼번에 실시、20개 인허가절차를 생략해주기로한 것이다。

34개의 관련인허가 업무는 주로 상가및 사무실용빌딩、아파트등 대형건물、특수 건물등을 지을때적용되며 한건물에 34개인허가업무가 겹치는경우는 없으나 최소한10여개 이상씩겹치도록되어있다。

또 개인 단독주택가에 짓는것때는 대부분주택가를 지을 이므로 해당이 안되는경우가많다。

4일 건설부가 발표한건축행정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인허가업무를 일괄처리하기위해 건축과에 일정한 기준을비치해놓고 도로점용허가등 4가지 인허가 업무는 건축허가 신청과동시에 처리、별도 허가서류를 내지않아도 이미 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하도록했다。

또 일단 접수된신청서를토대로 도시계획과、수도과등은 물론 문교부등 11개관련부서와의 立地문제를 협의하는것도 건축과에서 독자적으로직접 심의、기준에 위반내용이 없을때는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했다。

건물시공이 끝나 준공검사를 할때는 건축과에서 汚水정화시설등 5개의 준공검사를 기준에따라 한꺼번에 끝내도록했다。

"滯賃企業 엄중조치"

全대통령、交通·勞動部보고받고 지시

全斗煥 대통령은 4일 상·하오 청와대에서 교통부와 노동부로부터 새해소관 업무계획을 각각보고받았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 하오 勞動部장관과 5명의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능력이 있으면서도 임금을滯拂하는 악덕기업은 법에의해 엄중히다스려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勞使관계의 원만한 定着과 근로자들의 天職의식、기업인들이근로자들을 자기가족처럼 아껴주는풍토를 마련하는것이 경제성장、나아가『제2의 跳躍』의 중요한 기반중의 하나가 된다』고 강조하고『이런 방향에서 노동부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勞使문제에 외부불순세력이 개입하는것을 막고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전문분야별 分擔체제의 직업훈련이 이루어 지도록 할것 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尹子重교통부장관과 관계국장5명、安昌和철도청장、文明龍해운항만청장등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높다』고지적、『교통질서 확립이 바로 전체사회질서확립의 시작이라는 각오아래 이의확립을위해특히 노력하라』고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운수산업체 또는 운전요원등에대해、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하다는점과 질서확립에대한 정부의 방침을 확실히 인식토록 행정지도를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大型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것과 교통부산하 철도청을비롯해 각 정부투자기업들은 在物조사를 철저히 실시、불필요한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밖의것은 적극 활용하는등 경영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일것등을 지시했다。

"서울·大田電鐵 87년에완공"

"勤勞者 실질임금 최대보장"

【교통부】 교통부는 서울·釜山·大邱등 전국 주요 도시의 역(驛)건설에 민자(民資)를 유치、역청사를 현대화하고 서울~大田간 고속전철을 2년앞당겨 87년 완공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4일 상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년도 주요 업무및 올림픽 지원 사업계획을 全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통부는민자역건설의1단계로서울·龍山·清涼里·東大邱·釜山등 5개역사를、2단계로 永登浦·水原·大田·光州역을、3단계로 수도권전철역들을 민자역으로 지을계획이다。

교통부는 또 서울지하철3·4호선을 오는 84년까지 완공하기위해 올해안에 8백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기로했다。

교통부는 제주도를 국제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中文단지를관광자유지역으로 정하고 忠武를중심으로한 한려수도를국제해상휴양지로개발、각종위락시설과 해안일주도로를 만들고 忠武公유적지와 전승지를 관광코스로 연결키로했다。또 忠武~馬山간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서울~忠武간의 고속버스노선을 개설하기로했다。

항공대책으로는 신공항건설을 87년부터 착공하기위해 올해10억원을 들여 서울~大田사이의 君子·南陽·利川·水原·平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후보지를 확정하고 동해안의 관광지활성화를 위해 束草부근에 새공항을 건설할계획이며 서울~바그다드와 東京~濟州간의 국제항로를 개설하기로했다。

교통부는 특히 서울등 대도시의 출퇴근 승차난을 해소하기위해 10인승대형합승택시를 시범운행하고 전국1천34개면에 상주택시 2천대를 증차하고 시골택시는구간 요금할증제를실시키로했다。

【노동부】 노동부는4일하오 全斗煥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서 노동행정의 기본방향을 ▲노사협조체제의 정착 ▲기능인력양성과고급화 ▲고용안정의 촉진 ▲노동환경의개선 ▲근로복지의 증진 ▲산재보험의 확충등에두고 각종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전국지역단위로 우수선수의 구직등록을받아 희망에따른 적성취업이 이루어지도록하고 노동외교를 강화、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될 생산성임금제에앞서 올해에는 그준비단계로 물가상승및 생산성향상비율 그리고 기업의 지불능력등을 감안、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아래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최대한 보장키로했다고 보고했다。

嶺·湖南지방에 大雪

◇좀처럼 눈이 내리지않던 남해안의 馬山지방에도 13년만의 기록적인대설이내렸다。馬山市東城洞 객선부두앞 해안길에서는 어린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거워했다。【馬山=高明辰기자찍음 ★】

19일 五輪支援特委

국회는 오는19일 올림픽支援特別委를열고 88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李鍾贊국회올림픽위원장은 4일 이같이밝히고 현재국회에계류중인 法案들을 처리하기위한 제110회 임시국회는 빠르면 이달안에 열릴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에 앞서 오는9일 外務委를 소집、全斗煥대통령이 밝힌 민주통일방안과 통일원이 對北제의한20개 示範사업에관한 海外의반응과 정부측의 대책을 보고받으며 16일에는 文公委를소집、대학入試등 교육제도의문제점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인다。

統一憲法제의 환영

아시아安定에 기여

美上院外交委長

【워싱턴4日=聯合】찰즈·퍼시미상원외교위원장은 2일 全斗煥 대통령의 對北한통일헌법제정제의를 한반도와 아시아안정에 기여하는것이라고 환영하고 북한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것을 촉구했다。

퍼시위원장은 이날 상원본회의 연설을통해 全대통령의 제의를『남북한 통일을위한 중대제안』이라고 지적한다음『한국의 친구이자 맹방으로서 우리(미국)는 남북한간의 긴장을완화하고 한반도정세의 정상화를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全대통령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퍼시위원장은 또한 북한측의 부정적반응을 지적하면서도『全대통령의 제의가 보답을 받게되기를 강력히희망한다』면서 북한측에 긍정적 반응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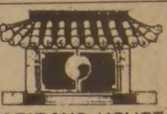
社會漫評

地平線

聞慶새재、天安삼거리、提川박달재、南原 춘향이고갯길같이 조상들이 다니던 옛길이나 마을간里道、농로、등산로、숲속의오솔길등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3천3백km의 자연소로가 88서울올림픽 이전까지 조성된다고한다。▼내무부가 어제 마련한 전국순례자연소로 조성계획을보면 사적지、국공립공원、자연학습원、문화예술의발상지、국방유적지등을 걸어서 찾을수 있게 샛길을 정비한다는 것이다。젊은이들이 조상의 얼이 깃든 옛길을 걸으면서 사람과 역사와 산천을 배우게될 이 자연소로에는 1km마다 이정표가 세워지고 안내판、야영장、유드호스텔등을갖추게한다고하니 흐뭇한 소식이아닐수 없다。다만 자연소로 조성이 본의아니게 자연파괴의 구실이 되고 숲속의 오솔길이 난잡한 유흥장이 되는 일은 결코 있어 안되겠다。▼조상들이 거닐었던 길을 따라 漢陽千里길을 찾아나서고 싶은 분도 많으리라 믿는데 옛날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큰 길이 여섯 있었다。첫째길은 서울~平壤~義州 1천86里、둘째길은 서울~金化~咸興~慶興 2천4백14里、세째길은 서울~原州~平海 8백10里、네째길은 서울~龍仁~忠州~東萊 9백7里、다섯째길은 서울~天安~井邑~海南~濟州 2천16里、여섯째길은 서울~江華 1백30里길이었다。일정때가되면서 자동차가들어오고 新作路가 만들어졌는데 해방전도로는 총연장 2만7천km였다。지금은 그 총길이 무려 4만5천9백55km、이가운데 31%가 포장되어 있다。▼20世紀를 도로의 세기라고도 한다。1억대가넘는 자동차가 철도와함께 세계의길을 달리는가하면 많은사람이 엄청난 시간을 도로에서보내고있다。하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아닌길은 사람이 오랫동안 다니며 발로 다져 만든것들이다。시골길로말하면 우리조상들이 짚신을 신고 밟아 만든 길들인것이다。겨레와 함께 興亡盛衰를 겪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문화의숨결을 불어넣어준것도 길이었다。서양에서는 길을 신성한것으로보며 길옆에 제단을 만들고 길가나 십자로에 사람을 파묻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길이 그옆에 세우고 딴민족의 침입을 막기위해 길을 험난한데 만들기도 했었다。▼길은 모든 사람에게 편의와 접근을 주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향수를 느끼게도했다。시골길가의 아카시아꽃내음이나 큰 전나무 한그루가 고향과 옛친구들을 추억케하는 상징도 된다。이번의 자연소로 다듬기 작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시골사람만이 아닌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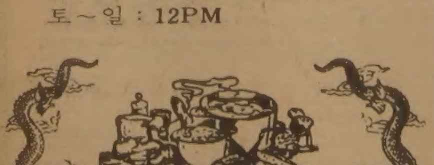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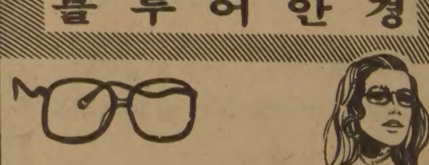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意安飯店
의안반점
흥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종 교 서 관
● 일반서적
● 기독교 서적 대량입하
● 성가및 설교테이프
● 각종 선물용품
● 백과사전 취급

시간 : 월~토 오전10:30~오후7:00
714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2층)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美·日、對潛초계정共同개발"

日 野黨議員 衆議院서 暴露

"57年이후 技術·經費함께 부담" 예산심의中斷소동 빚어

【東京4日=聯合】일본중의원은 4일 해상자위대가 현재 사용중인 PS1 對잠함초계정이 美日 공동연구개발에의해 제작되었다는 야당의원의 폭로를둘러싸고예산심의가중단되는등 한때파란을빚었다。

이날 질의에나선 사회당의 오이데·순의원은 美日양국이 지난56년부터 14개군사기술교류계획의 일환으로 68년부터 현재 해상자위대가 19대를 보유하고있는 PS1對潛艇초계정을 美日양국의 기술및 경비공동부담에의해 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美日양국간의 약속상 이자료의 공표가 불가능하다는이유로 오이데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오이데의원에 의하면 이 PS1對潛초계정은 美日양국의 기술및 경비협조로 지난57년부터 개발에 착수되었으며 68년에 완성된후 이에관한 제작기술일체가 미국측에 양도됐다는 것이다。

한편 미야자와(宮澤) 관방장관은 이날『이에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하면서도『무기수출 3원칙에 기술도 포함된다는 정부의견해가 76년에 나온이상 이이전의 군사기술협력은 문제가 될수 없다』는 정부측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와다·유다가 방위청장비국장은 美日양국의 14개군사기술교류계획중에는 PS1의 개발에관한 부분도들어있었다고 시인하고 美日양국은 지난70년 對潛비행정의 공동개발을 계획했었으나 미국측의 사정으로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晩餐席上의 레이건·무바라크夫妻 레이건美대통령 부처가 訪美중인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부처와 함께 3일밤 白堊館의 만찬회장에 들어서고있다。【워싱턴3日AP電送=聯合】

헤이그, 오는13일에 루마니아 訪問

【본4日AP=聯合】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이달중순 루마니아를 이틀간 방문한다고 루마니아의 아게르프레스통신이 3일보도했다。

빈에서 청취된 이통신은 헤이그장관이 루마니아 정부의 초청을받아오는 13일부쿠레슈티에 도착할것이라고말했다。

美、내년 國防費 15%增額

總2천5백50억弗…議會에 제출

【워싱턴3日AP=聯合】캐스파·와인버거미국방장관은 82회계연도보다 15%증액된 총2천5백50억달러 규모의 83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의회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이 예산안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식제출하기에앞서 2일과 3일 각각 상원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제출했는데 그가 예상보다도 1백억달러나 늘어난 이 예산안을 앞당겨 제출한것은 4일~10일간의 중동순방길에 나서기때문이다。

美·「팔」직접對話 촉구

무바라크 아랍·이스라엘 無條件협상도

【워싱턴4日AP UPI=聯合】미국을 방문중인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은 3일 팔레스타인을포함,협상의사를 가진 모든 아랍당사국들과 이스라엘간의『의미심장하고 무조건적인 대화』를 촉진시켜주도록 촉구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또『중동 평화달성을 위해 맨처음 취해져야할 조치는 미국이 팔레스타인과 직접대화를 갖는 것』이라고 말해 중동평화정착에 美·팔레스타인간의직접대화가필수적임을강조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날밤 백악관의 공식만찬회에서 행한 축배연설을 통해『미국은 협상의사를 가진 모든 아랍당사국들과 이스라엘간의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수있을것』이라면서『이스라엘과 아랍당사국의 대화에 어느쪽도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미·팔레스타인간의 적절대화는 유발,수백만에 달하는미국의 친구들과 희망에의 불꽃을 피워올릴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레이건대통령은 만찬이 끝난후 팔레스타인과의 담화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을받고『그것은 팔레스타인이 우리의 조건에 동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으며 팔레스타인이 우리조건에 동의하는경우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게될것』이라고 대답했다。

미국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않는한 이를 승인하지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유엔서 이스라엘逐出하면 美、재정支援 중단을 警告

【유엔본부4日UPI=聯合】미국은 만약 이스라엘을 축출한다면 미국은 유엔에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무성은 이날 성명을통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이스라엘을 유엔과 그 산하기구로부터 축출할 경우 이들 기구에 대한 미국의 참여및 지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것』이라고 강조 했다。

유엔에서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얻고있는 아랍국가들은 현재 열리고있는 유엔긴급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합병조치와 관련,강경한 내용의 對이스라엘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蘇기술자 招請은 장비整備위한것" 무바라크 解明

【워싱턴4日UPI=聯合】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3일 자신의 蘇기술자초청결정은 이집트에 도입된 소련장비를 정비하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波계엄령 宣布以前 共黨員 50만명脫黨

【바르샤바4日聯合=聯合】지난 12월13일 계엄령선포에앞서 1년동안에 약50만명이 공산당을 탈당했다고 폴란드신문이 4일 보도했다。

波 가톨릭指導者들 敎皇면담위해 訪伊

【로마4日AP=聯合】폴란드의 강력한 가톨릭 교회지도자들이 교황 요한·바오로 2세와 폴란드 계엄정권에대한 가톨릭교회의 전략을 협의하기위해 4일 로마에 도착했다。

요제프·글렘프 대주교를비롯하여 크라코프 교구의 프란시체크·마차르스키 대주교및 브로클라프 교구의 헨리크·로만·굴비노비치 대주교는 이날 폴란드에 지난해 12월13일 계엄령이 선포된이래 처음으로 폴란드태생의교황과 회담하기위해 바르샤바로부터 로마에 도착했다。

外信안테나

◆比4개野黨 통합 협정= 필리핀의 4대야당 지도자들은 통일전선을 구축, 마르코스필리핀 대통령정권에 대한 새 정당을 결성하기 위한「합당협정」을 체결했다고 새야당연합체대변인이 3일 밝혔다。【마닐라=UPI】

◇韓·사우디, 뉴스交換 서명 金聖鎭聯合通信社사장(右)과 사우디통신(SPA)의 압둘라·힐라일사장이 3일 리야드에서 상호 뉴스교환계획에 서명하고있다。中은 張禮準대사。【리야드3日SPA電送=聯合】

佛共黨、獨自路線다짐

波계엄支持불구…"願하는 社會類型건설"

【파리3日AFP=聯合】蘇聯圈으로 복귀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는 조르지·마르셰 프랑스 공산당 서기장은 3일 프랑스共産黨이 다른 유럽공산당의 대열에서 벗어나 폴란드의 계엄정부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對蘇독자노선을걷고있음을확인했다。

마르셰서기장은 이날 파리 근교 생투앙에서 열린 제24차 전당대회개막식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프랑스共産黨은 오랫동안 어떤 모델의 존재를 믿어왔으나 이제 원하는 사회유형의 건설을 위해 외부로부터 들어온『모델의 독단주의』를 배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공산당이 자유스러운 형태의 유러코뮤니즘과 동질적인것이라고 말하고『프랑스특유의 사회주의는 다른 곳에서 조작된것이아니며 또한 그렇게될수도없다』고 말했다。

정치분석가들은 마르셰서기장이 6시간에걸친 연설에서 소련을 직접지칭하는 일은 거의없었으나 프랑스공산당의 장래에대한그의구상은소련형공산주의의배격을시사하고있음이 분명하다고말했다。

佛수송기墜落…36명死亡 공정대원들 訓鍊참가중

【파리4日AFP=聯合】승무원5명과 외인공정대원 31명을태운 프랑스군용수송기가 3일밤 東아프리카의 지부티에서 추락,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프랑스국방성이 4일발표했다。

프랑스국방성 대변인은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막지대의 산에서 이날상오 추락한 NORD250수송기의 잔해가 구조대에의해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波사태 糊塗하려는「逆攻」

蘇、對美 새軍縮案 제의의 속셈

東西긴장 美에 責任전가 「0의 選擇」거부 辨明성격

90년까지 時限둔것은 실질戰力약화우려 없기때문

國際焦點

오는 90년까지 東西양진영의 중거리핵미사일을 현재의 3분의2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브레즈네프의 3일제안은 우선 레이건행정부출범후 되풀이돼온 미소 두강대국간의 평화공세攻防戰의 연장으로 볼수 있다。

어찌보면 브레즈네프는 미국이 미사일감축제안자체를 수락할 가망성이 없음을 미리 계산에넣어둔채 오히려 附帶성명식으로 내놓은「연계논리의 거부」에 더 역선트를 둔것같은 인상마저 든다。

연계논리란 소련이 폴란드에 대한 과잉개입을 중단하지않는한 소련과의 어떠한협상에도 응할생각이 없음을 레이건이 천명한것을두고 한 말이다。이연계논리 때문에 지난1월초 제네바에서 열린 美蘇전역核감축회담도 김이 빠졌고 지난 26일 헤이그-그로미코 美蘇외상회담역시 하룻만에 결론없이 끝장이났다。

브레즈네프의 저의는 요즘의 동서간 초긴장상태가 미국의 부당한 고집때문이라고 책임전가를 하고싶고 또 폴란드사태때문에 사방에서 받고있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보자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레이건이 이른바「零의 선택」이란 상호 核감축제안을 내놓아 당시 유럽에 들끓고 있던 反核여론을 잠재웠듯이 브레즈네프는 이번 제안으로 폴란드波紛을 넘기고싶은것 같다。

브레즈네프는 물론 그「零의 선택」제안이 형평과 동등안보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다시 강조하여 거부입장을 천명했다。

소련이 유럽에 배치해놓은 SS20、SS4、SS5등의 중거리핵미사일을 해체하면 미국도 크루즈미사일、퍼싱Ⅱ등의 정확도 높은 신형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는것이「零의 선택」제안이었다。

反核물결에 현기증을 느끼던 유럽국가지도자들은 과감하고 현실적인제안이라고「零의선택」을환영했으나 소련이 이것을 거절하고 나오리라는 것도 애초에 예견할수 있었던 일이었다。

소련은 항상 미국과 核전력을 비교할때 核前進基地(FBS)문제와 東西양진영의 병방숫자를중요시해왔다。소련은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소련領에 도달할수있는 능력을 갖춘 7백대가량의 폭격기가 몹시 신경에 거슬린다。또한 가공할 이동核폭격기지 항공모함과 폴라리스 핵잠수함등이 소련의인근해역을가까이 싸고도는것도 겁이난다。여기에 소련을 마치 포위하고있는 형상으로 세계곳곳에 전개된 미군기지를 소련은모두 미국의 核前進기지로보고 있다。

무대를 유럽으로좁혀 유럽대륙에서 모든 핵미사일을철거하자는「零의 선택」이 이러한 소련의 전략개념에 배치되는것은 당연한 노릇이고, 따라서 소련이 이것을거절하리라는것은 쉽사리 내다볼수 있었던 것이다。

소련은 미소양진영의 核刀을 평가할때 東西양진영의통합전력의 관점에서 파악할것과 동맹국의 숫자를 고려해야 한다는것을 포기할수없는 전략원칙으로 삼고 있다。예를들어 영국과 프랑스의 핵단두가 미국이나 중공을겨누지않고 바로 소련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브레즈네프가 제시한 90년까지의 기간이라면 소련의 핵미사일정확도는 지금보다 10배로 증강돼 미국과 맞먹게 된다。이때가면 미사일의 숫적우열은 별문제가 되지않는 것이다。

소련의 對美핵전략의 주축은 초대형장거리핵미사일이다。파괴력이 미국의 장거리핵미사일보다 큰 소련의 장거리미사일이 정확도까지 증강되면 90년쯤 중거리핵미사일은 대폭 줄여도 소련의 전력은 손상될 것이 별로없다。

소련의 평화공세의 뒤에 숨은 계산은 역시 미국으로보면 브레즈네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돼있는것이다。【崔相鎬기자】

◇美·蘇의 유럽 군사력비교

미국				소련			
무기		사정거리(마일)	보유수	무기		사정거리(마일)	보유수
퍼싱Ⅱ	미사일	1000~1500	108	SS20	미사일	2300	250
크루즈	〃	1500~2000	464	SS4	〃	1100	340
				SS5	〃	2150	40
F111	폭격기	3000	156	백파이어	폭격기	3100	65
				Badger	〃	3000~3600	310
				Blinder	〃	1400	125
F4	전투기	700~800	334	SU19	전투기	720	480
F104	〃	800	425				

※프랑스는 중거리 미사일 98基(지상발사18基, 잠수함발사 80基)로된 독자적 核軍보유。

蘇·波에 추가制裁

나토 會員國別실시 合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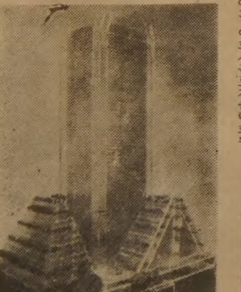
【브뤼셀3日AP AFP=聯合】15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은 3일 폴란드계엄통치계속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폴란드와 소련에 대한 새로운 추가경치·경제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나토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날 나토주재 각국대사와 고위정부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뒤 나토대변인은『회원국들이 새로운 추가제재조치를 검토, 회원국별로 각기 개별적으로 제재조치내용을 발표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나토소식통들은 회원국들이 수일내에 각자의제재조치를 결정, 직접 발표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또 지난1월11일 나토각료회의 선언이 요구한 계엄령철폐 구속자석방및 정부·교회·노조간의 대화재개등 3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않았으며 蘇聯의 압력도 줄어들지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각국이 취한 제재조치 가운데는 경제·기술·과학·문화부문에 있어서의 각종 협정의 이행보류및 對폴란드 차관삭감과 항공교류축소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最大 海上호텔 싱가포르에 건설될 세계최대의 海上호텔 패러다이스·퍼레이드·호텔의 모형。50층1천6백室 규모인 이 호텔의 총공사비는 1억7천만달러。【싱가포르4日UPI電送=聯合】

海外토픽

골프場에核待避所 ★日에 現代版 노아의方舟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한 골프코스회사는 골프장지하에 일본최초의 대규모 핵대피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현대판「노아의 방주」에는 이회사근로자클럽회원、인근주민등5천명이 1개월을 지탱하고도 남을 충분한 음식과 식수를 비축한 예정이라는데 연내에 착공、83년중반에 완공할 예정이라는 것。【요꼬하마朝=聯合】

非難받는 江靑패션 ★"멋대가리없는옷의標本"

중공의 지식층 일간지 북경일보는 최근 고 毛澤東당주석의 미망인 江靑이『멋대가리 없게』옷을 입는 산표본이라고 힐난했다。

지난1966~76년 문화혁명을 주도、한때 여황제의 영화를 꿈꾸었던 江靑은 현재 형집행이 유보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데 북경일보는 江靑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국적불명의「국민복」을 만들어 이를 중공여성들에게 억지로입히려했다고 비판했다。

북경일보는 중공여성들이 정치적 이유에서 뿐만아니라 江靑이 입던 국민복이『치마도 결웃도 아닌 뿐더러 국내외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옷』이라는 이유를 들어 착용을 거부했다면서 문제의 옷은 인민들에게 거부반응까지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北京AP=聯合】

時流則 리포트

존·F·케네디前美대통령도 白堊館회의·電話 비밀녹음

【워싱턴4日=曺淳煥특파원】존·F·케네디前 대통령은 재임중 6백번의 백악관회합과 관전화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4일1면머릿기사로보도했다。

포스트지의 이기사는 아래와 같다。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회합과 전화를 비밀녹음했다는 것이 수년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그회합의 참석자와 전화통화의 내용은 밝혀진바 없었다。

보스턴시의 케네디도서관으로부터 입수한 29페이지의 녹음기록은 그 녹음이 62년7월부터 케네디가 암살된63년11월까지의 기간에 걸친것이었음을 밝히고있다。그녹음은 62년 쿠바미사일위기、베를린위기、베트남전쟁、그리고 미시시피대학의 黑白대립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기록이다。

또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가족、각료、백악관참모、전직 대통령들、그리고 세계지도자들과 외교관의전화가 녹음되었다。

케네디백악관의 녹음기록에는 케네디부인 재클린여사와 동생 로버트·케네디、에드워드·케네디、전대통령 아이젠하워、트루먼、케네디백악관의 부통령 존슨、골드워터、험프리、잭슨、풀브라이트、맨스필드등 상원의원、매코맥하원의장、러스크국무장관、맥나마라국방장관、번디안보담당보좌관、테일러합참의장、맥아더장군의 전화대화가 포함되었다。

적어도 린든·존슨、프랭클린·루스벨트등 두 대통령도 백악관의 사사로운 대화를 녹음했다。

닉슨백악관은 케네디대통령의 녹음기록을 알았으나 케네디백악관시절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그의 녹음을 본받아 대통령집무실 대화를 녹음한것이 닉슨을 사임케한 워터·게이트사건을 빚어냈다』

統一方案 지지 벨기에外務省 표명

【브뤼셀3日AP=聯合】벨기에정부는 3일 全斗煥 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제의한 남북한평화통일방안에 지지를 표시했다。

국제運送 關稅협약 加入書 유엔에寄託

정부는 지난달29일자로 金瓊元駐유엔대사를 통해「국제도로免稅통과證書를 담보로 행하는 貨物의 국제운송에 관한 關稅협약」의 加入書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4일외무부가발표했다。

메아리

「지나치게 빠른 成人化」미국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청소년문제의 골치거리다。분별 없는 행동이「어른의 惡」을 쉽게 흉내 낸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중 3분의1가량이 10대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상원 청소년문제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한해 1백만명 이상의 10대가 집을 뛰쳐나간다。무료와 고독감에서 온「반항의 家出」인것이다。자살도 한해 2천명꼴이 된다。

하버드대학 청소년문제 전문가인 브레즐톤교수는 청소년비행의 예방은 부모와의 대화통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사춘기가 오기전에 부모와 자녀관계가 확립되어야한다는 의견이다。

「빠른成人化」의 고민은 일본도 비슷한 현상같다。어느 고등학교 구내에서 학생들이 섹스영화를 상영하다 교사들에 의해「條理의 제지」를 받은 일도 있었다。여자 중고생들의 섹스에 대한 답섭이 갈수록 强度를 더해간다는 한 신문조사결과도 나왔다。

청소년의 탈선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볍게 볼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한국10대들의 가치관도 크게 바뀌고 있다。「우리」의 개념은 흐려지고「나」중심으로 사고가 회전하고 있는것이다。

내子女 내弟子

여러갈래의 조사결과를 챙겨 보면 우리 청소년의 비행·탈선도 큰 걱정을 던져 준다。1백명중 4명꼴로 경찰의 신세를 진다。이가운데 학생은 대부분 무단결석자들임이 밝혀졌다。가정·학교·사회의 책임이 정말 무거기만 하다。

한달 가량이 지나면 새 학년이 시작되고 청소년의 새봄이 피어난다。남녀 중고생들의 복장과 머리모양이 우선 달라진다。외모의 成人化가 자칫 엄동한 해방감을 안겨 비록 극소수라도 탈선의 위험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외활동을 지도하기위해「사회의 학교화운동」을 전개한다。

「모든 청소년을 내 자녀、내 제자」로 여기는 범사회적인 운동이다。가정과 학교가 모자라는 힘을 우리 사회 전체가 보태주고 떠밀어줘야 하겠다。

이 운동의 성패는 결국 온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차가운 감시자의 눈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보호자의 눈길을 다함께 청소년들에게 보내주자。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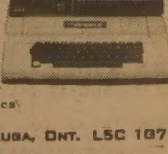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歌謠界

새목소리로 「不況탈피」 몸부림

7·8社 「비밀兵器」 육성중

기성가수에 도전, 판도 變化 예상

食傷한팬의 구미돋우기에 안간힘

새목소리로 不況을 뚫자—。지난2년간의불황으로 빈사상태에있는 가요계는 기사회생책으로 역량있는 신인가수 발굴에 눈을돌리고있다。해묵고식상한 가수로는 팬들의 관심을 끌수없어 不況돌파구를 찾을수 없으리라 판단한것이다。따라서 컬러TV시대에맞춰 가창력과 미모를 겸비한 새목소리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 영

◇조인숙

◇김민식

◇정재은

◇남궁옥분

지난 2년간의 가요계는 특출한 신인가수도없고 히트곡도 없는 가수·가요불모지였다。趙容弼을 중심으로 혜은이 李銀河 崔憲 尹秀一·崔炳傑·全永祿등기성 가수들의 활동은 활발했으나 기대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79년말부터 가요계에 불어닥친 不況은 PD의 활동규제여파가 가세되어 깨어날줄 모르고있다。또 레코드 제작사들은 不況타개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하기는 커녕 외국복제음반과메들리집등 안일한 제작으로 일관, 가요와 팬들을 갈라놓는 결과를 자초했다。따라서 제작사의 신인발굴작업은 만시지탄이 없지도않다。제작사들의 신인육성계획은 81년도에등장해서 두각을 나타낸 연륜높은 가수를 집중지원하는한편 전혀 알려지지않은 산뜻한새목소리를 찾아내 선보인다는 것。현재 7~8개社가 대학가와, 통기타그룹에서 유망신인을 찾아내 레슨중이거나 테스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신인가수후보 가운데는 타사의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이름조차도 밝히지않는「비밀兵器」도 들어있어 새해 가요계에 새바람이 기대된다。

제작사별로는 地球·太陽·오아시스·서라벌·大星·成音·히트레코드사등이 신인발굴작업을 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趙容弼·李正熙를 비롯해서 60여명의 전속가수를 확보하고 있는 地球레코드사는 작년도에 등장한 李勇(바람이려오·국풍가요제금상)鄭英美(그대가 떠나간 뒤에·MBC홍콩가요제선발금상)河成寬(빙빙빙)李青(눈물속의 연인)과 李美子의 딸 鄭在恩(항구·연락선) 3남매 그룹「사랑의 하머니」를 정상에 올릴 작전을 짜고 있다는것。그외 4~5명의 신인이 데뷔 준비중에 있다고。

多株主로 구성된 太陽음향은 각기프러덕션별로 새목소리 찾기운동을 펴고있다。羅勳兒·혜은이·崔憲등이 전속돼있는 太陽의 「鋁一」은 지난1일 신인가수콘테스트를갖고 미모와 가창력을 지닌 4명(여자3명)을 발굴했는데 신곡발표시까지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한편李美子·패티金·曺美美·與承根등이 소속돼있는 太陽의 「트리오」는 이미연(아무말도 하지말아요)이진영(빗속을 혼자)두신인가수를 2월중에선보일 예정이며 4명의 신인이 데뷔준비중이라고 한다。

서라벌레코드사는 작년에데뷔한 羅英을 스카우트하는 한편 6인조혼성그룹「히트·걸즈」(망각·날쭉항구)를 연초에 데뷔시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중고신인 李哲植·金賢植에도 희망을걸고 있다고。

金民植(첫사랑의 생일)金泰正(백지로 보낸편지)曺麟淑(어쨌든 사랑해)홍삼트리오(내사랑) 너랑나랑(희미한 얼굴)등 작년에 많은 신인을 발굴해낸 大星음반은 10여명의 신인을 확보,출반준비중이라고 한다。

또 지난해 南宮玉粉(사람사람 누가 말했나)을길러낸 히트레코드사에선 4명의 신인이 목소리를 다듬고 있으며, 외국 복제음반에주력했던 成音도 孫敏(나는 왜)등 새목소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작사들의 신인발굴작업은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불황을 녹이는 자극제구실을 할것으로 보아 가요계의 판도변화도 예상된다。

이같은 새목소리 찾기는 창작의욕이 높은 PD의활동재개와 지원이 수반돼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李亨基기자】

卓協、국가대표팀코칭스태프改編

새감독에 金昌濟씨

대한 탁구협회는 4일 83년의 제37회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를 개편했다。

中共의 벽에 부딪친 한국탁구의 활로를 열기위한 대책으로 탁구협회는 75년이래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왔던 朴聖仁씨(제일모직감독)를후퇴시키고 金昌濟씨(삼호주택감독)를 새감독으로 기용했다。남자코치로는 金忠勇씨(제일합섬감독)가 유임되고 여자코치로는 尹相汶씨(제일모직코치)가 재기용됐다。

이번 국가대표감독 교체는 사라예보에서의 세계제패 10주년을맞는 83년 세계대회에서의 명예회복을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한국은 73년 사라예보대회에서 李慶鎬감독, 金昌濟 남자코치, 千榮石 여자코치를 기용, 中共을 물리치고 여자단체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나 75년 캘커타대회, 77년 버밍검대회, 81년 노비사드대회에서 朴聖仁감독이 이끈 한국팀은 中共에 연패, 준우승에 그쳐왔다。

탁구협회는 79년 평양대회에 대비, 千榮石씨를 감독으로 기용했으나 北韓측의 입국거부로 대회출전의뜻을 이루지 못했다。

金東吉KO勝 準決에

印尼아마복싱 한국 銅메달3개확보

【자카르타3日聯=綜】한국의 金東吉(라이트웰터級·전남체고3년)은 3일 자카르타에서 속행된 제5회 프레지던트컵 국제아마 복싱대회 준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의 유·페리 선수를 1회 KO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 3명의 선수를 출전시키고 있는 한국은 이날 현재 출전선수전원이 준결승에 진출,3개의 동메달을확보해놓고있다。

한국·伊등 6개국

印골드컵축구 參加

【캘커타3日聯=綜】한국을 비롯 이탈리아 우루과이 中共 불가리아 印度가 오는 2월16일부터 3월5일까지 캘커타의 에덴가든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회 자와할랄·네루 초청 골드컵 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아소케·고쉬 대회사무국장은 참가팀이 리그전을벌인 후 상위2개팀이 경기최종일인 3월5일 결승전을 벌인다고 밝히고 유고슬라비아는 참가신청을 마감후에 제출했기때문에 대회에 참가할수없게되었다고 말했다。

印국제여자하키에

한국·日本등 참가

【뉴네(印度) 3日P-I-Ⅱ=綜】韓國·日本·말레이지아등이 오는3월28일 印度의마하라시트라에서 열리는 제2회 베굼·아이자즈·라술국제여자하키선수권대회에 참가할 계획임을 통보해왔다고 마하라시트라여자하키협회장인 아르나바르·다마니아여사가 3일 밝혔다。

대회기간동안 西獨팀도 印度를 방문, 시범경기를 갖게될 것이며 美國대표팀도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베굼·아이자즈·라술국제여자하키선수권대회는지난75년 마드라스에서열린 제1회대회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부활되는 것인데 印度는 이번 2회대회에 2개팀을 출전시킬 것으로보인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㊻

서울大 敎務處長시절

한국轉屬 발령받은후 轉役

나는 서울에 한주일간 휴가를다녀온뒤 해군본부에 한국배속을 전제로한 복무연장 신청원을 냈다。그렇게 안하면 한국에 다시돌아가는일이 쉽지 않을것같았다。

미국의 군복무제는 반드시 몇년몇개월로 한정되지않고 근무지와근무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나의 경우 45년9월이면 제대할수 있게 돼있었다。

종전후에도 해군소해정의 임무는 계속되었다。한국 일본근해는 물론 중국연안까지 水雷제거작업을 수행했다。

水雷는 보이지않는 바다속에 설치됐기 때문에 배두척 사이에 로프를연결하여 떠올려야했다。

나는학생시절의 우수한 사격실력을믿고 총으로 水雷를 향하여 발사한결과 우연히도명중했다。「이렇게 빨리제거로투해」하고 뽐냈으나 바다위에 덩실거리는 작은물체를 배위에서 맞힌다는일이 우연이라는 것을 잘알기때문에 그다음사격은 하지않았다。보나마나 또 명중은없을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진정대로 한국에서 근무하도록 미군정청에 배속된것은 그이듬해(46년) 5월이었다。해군대위로서 처음 근무한곳은 문교부였으나 그해 10월부터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으로 발령되면서는 제대가되었다。예비역 전역이된것이다。

내가 서울대 교무처장일을 맡게 된것은 한국어를 할수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겠으나 막상 일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툴러혼이났다。

일제때의 京城帝國大學과 서울에 있는 여러계열의 전문학교를 합치는데는 의견이 제각각이고 좌익학생들의 반대에 부딪친데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어를 모르니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맡은 일은 교학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재정 사회문제까지 겹쳐 사회경험이 부족한 30세의 나이로서는 더욱 힘이 들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46년7월에 어머니가, 같은해 11월에는 아내가 미국에서 도착함으로써 延禧洞우리집은 다시활기를띠게되었다。쌍동이 동생중의 하나인 원요한목사는 선교사로한국에부임, 가톨릭 캐럴神父와함께 사회부의구제품 분배담당을 맡았다。

◇언더우드 4代。延禧캠퍼스 元杜尤 할아버지의 동상앞에서 아버지(元漢慶박사) 장남漢光과함께。

大學行政·財政맡아…國大案등으로 힘겨운 나날

나의 세째동생 元得漢은 平壤을 다녀오기도했다。해방직후 미국은 平壤에, 소련은 서울에 각각 연락장교를 두었을때 그는 한국어를 알기때문에 연락장교 운전병으로 平壤에 갔던것이다。

미군정청에 근무할당시인 46년가을의 일이다。어느 일요일 하오 아버지와함께 지프를 타고 북한산을 돌아 의정부쪽으로 나오는 길이었다。

해가 저물어 으슥으슥할 무렵인데 큰길에서 보초근무하던 미군헌병이 마을사람들로부터 투석당할위협이 있으니 동네에 들어가지 말라고했다。아닌게 아니라 저만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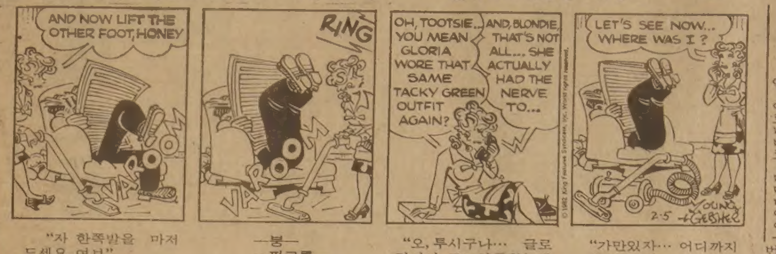
아버지는 일생간에 한국에 살았으니 괜찮다면서 무슨일인가 알아보기위해 마을로 들어갔다。들어가본결과 마을사람들이 모인것은 쌀배급을 타기 위해서였다。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니 우리가도착하기 얼마전 미군한명이 술을먹고 마을앞을 지나가다여자한명에게 말을 건넸다。여자는 겁이 나서 집에 숨었다。이를 지켜본 한국사람들이 그 미군을 향해 나무랐다。

별다른 사건이 아닌데도 언어장벽에 의한 오해가 하마터면 反美행동으로까지 확대될뻔 했던것이다。

한번은 아버지가 무개지프를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新村로터리에서 덜컹하는 바람에 짐하나를 떨어뜨린걸 모르고 그대로 달린것을 그동네사람이 이를 주워서 우리집에다 갖다준일도 있다。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자 한쪽발을 마저 드세요, 여보" —붕—

—붕— —찌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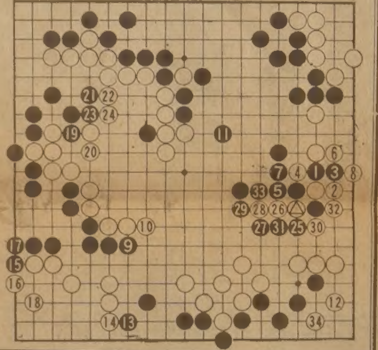
"오, 투시구나… 글로리어가 또그허름한녹색 옷을 입었단말이지?" "그런데, 블론디, 그뿐 아니야… 정말 뻔뻔스럽게도…"

"가만있자… 어디까지 했더라?"

제13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11局 第6譜 101~144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姜哲民〈0勝3敗〉
黑〈4段〉鄭壽鉉〈1勝2敗〉



전보白100、본보△표로 끊어놓더니、姜6단은『바둑이…』하고 또그 독백이다。다만 이번에는 결코 비관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 넘치는 기백도 담겨있는듯이 느껴졌다。앞서가던 黑을 거의따라잡게된 마당인지라 자연 내친걸음에 숫제 승부를 결정지으려는 용기가 생길밖에 없을것이다。

이렇게되자 鄭4단쪽이 약간초조해졌는지 과격한 싸움을 시도했다。다름아닌 黑1。그러나 이것은 白8까지로서 黑1、3을 먼저 투자한만큼 손해를 본셈이다。

趙8단은『차라리 黑1은 그냥 5자리에 뻗어둠만 못했다』는 평을내렸지만 鄭4단자신도 뜻대로 안된데에 불만이컸을것으로 여겨진다。더는

黑、기민한 先手 끝내기

이곳을 건드리지 못하고 一轉하여黑9를 선수하더니 11。현시점에서 최대의 곳이었다。

白12도 물론 큰곳。여기서 판세를 살펴보면 黑11로 형성된 상측이 워낙 방대하여 아직도 黑이 대세를 리드하고있다。

이대로 다듬어진다면 黑의승리는부동、白은 뭔가 또한차례 비상수단을 구사해야될 판국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수는 黑이 잡고있다。鄭4단은 겨우 안도의한숨을 내쉬고 최대의 끝내기를 모색한다。

이리하여 하변에 黑13。다시 좌변을 黑15、17。그리고 좌상을도 黑19이하 23까지 기민하게 선수로 다져놓더니 우측에 돌아와 黑25이하의 큰끝내기를 마무리지었다。비록 白34의 큰 곳을 앗기긴 했지만 黑은 차츰 골인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一凡】

한국일보 詩壇

눈

朴 英 雄

그곳에도 눈이 내리는지 몰라.
펑펑 함박눈이 내려서
길이란 길이 모두
하얗게 떠 있는지 몰라。

사시사철 황토바람 분다는
소문도 들리고
사시사철 장마비 내린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지금쯤 아마도 눈이 내리는지 몰라。

세상이 변하면 오신다더니
며칠을 두고 눈은 내려 쌓여
저렇게 사방이 캄캄한데
그대 오리라는 뜬소문 하나 없이
어찌 이곳에만
함박눈이 저리도 내리는지 몰라。

멀고 아득하여 눈물 고이는 날
그곳에는 아직
캄캄한 바람이 불고 있나보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내달 홍콩 제1회 亞洲도시대항 籠球에

男子代表팀 파견키로

쿠웨이트 大會에도

농구협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국제남자농구대회에 대표팀을 파견키로 3일 결정했다。

이 대회에는 韓國을 비롯 쿠웨이트·中共·모리타니·브라질등 5개국이 참가한다。

남자농구대표팀은 이어서 3월2일부터 7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제1회아시아도시대항남자농구대회에도 서울시대표로 출전한다。

대표팀은 6일부터 泰陵훈련원에서 제2차「5박6일」훈련에 들어간다。

東亞建設 여자팀 西日本탁구 참가

東亞建設 여자탁구팀의 柳炳興코치와 安海淑·黃明淑선수등 3명은 日本山口縣체조협회에 초청을받아 오는13·14일 山口縣에서 열리는 西日本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

체조대표 트레이너 韓進 李泳澤씨기용

대한체조협회는 韓進 남자체조팀 소속의 前 국가대표 申鍾淳·李泳澤씨를 韓進측의 양해를 얻어 4일부터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기용, 강화훈련에 참가시켰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8>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⑮

『염려마、잘할테니까。변신이야말로 우리집안의 내력이거든』

유원장이 멀어져가는 거간꾼들쪽으로 고개를 꼬면서말했다。마침 해가지고 있었다。유원장의 얼굴의 주름살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범접게 상기해 보였다。

『네? 무슨 내력이요?』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대단한 겁장이셨지。어느만큼겁장이셨나하면 밖의 헛간에 가실 일이 있으면 어머님을 깨워서 꼭 같이 가실만큼。두 분 금슬이 너무좋아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대신나를 깨워서 앞장을 세우시는 거야。우리 집안의 가훈이 뭐였는줄 알아? 도둑이 든 낌새를 채면 몰룰자는 척 하라、였다구。그런 아버님이 죽음앞에선어찌나 늠름하셨던지、그 분의 순교는 지금까지도 그당시의 목격자에 의해 전설처럼 전해내려오고있지。밀고자 동조자 살인자를다 함께 용서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의은총을 찬양하셨으니까。』

유원장이 다시 날이 선 시선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빠르게 지껄였다。

『이상해요。그런 훌륭한 아버님의 뒤를 이으시지 않은게』

『그분은 마치 그때를 위해서 일생동안 용기를 아끼고 쌓아둔 것처럼 그때 당신의 죽음을 미화시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야말로 초인적이었지。오로지 자신의 죽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만 쓰여진 용기…그게 난 싫었어。그분의 죽음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용기가 없는 많은 겁장이들, 당신이 돌봐야할 길잃은 어린 양들에게 그분은 과연 뭐였을까?』

유원장이 수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수지는 어깨를 떨면서 고개를 저었다。유원장이 수지에게 바란건 이해였고 수지는 그것을 망설였다。마른 바람이 불었다。

누가 누구를 참으로 이해했다 할수 있을것인가。사람과 사람사이의 이해야말로 허구라는 생각이 수지를 망막하게했다。

해가 넘어가고 낙타등같은 능선위 하늘이 장미빛으로달아올랐다。그 마지막빛이 수지를 초조하게 했다。뭔가를 알아낼수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그 기회를 슬그머니 놓치고 해방되고싶은 마음과이번 기회를 놓치는것은 동생의 손목을 두번 놓아버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가 세차게 갈등했다。

『그만 가보지』

수지가 미처 어떤 선택을 하기도전에 유원장이 엉덩이의 흙을 털며 일어섰다。

『여쭤보고싶은 게 있어요』

선택하기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말았다。

『뭔데?』

유원장이 앞장 서서 걸으며 물었다。

『저, 목이라는 애 있잖아요?』

『응, 그래 오목이 말이지?』

유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생급스럽도록 명랑해졌다。수지는 유원장이 목이의 이름에다 성(姓)을 붙여 오목이라고 하는 바람에 어찌나 놀랐던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느라 잠시 다음말을잇지못했다。

『네、목이가 가있는 곳을 알수있었으면 해서요』

『알수 있고 말고。그렇지만 수지가 누굴 하나 계속 도와주고 싶으면 딴 애로 하지 그래』

『왜요 선생님?』

『목이는 아주 잘 돼 나갔으니까 염려안해도 돼。요새 갑자기 후원자가생겼거든』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KAL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31-4607
신 세 계 여 행 사 536-2155
서 울 여 행 사 535-6004
제 일 여 행 사 535-2377

竊盜피해자 召喚억제

——도난申告書 제출로 끝나게

告發정신 높이게 비밀保障
住宅침입 절도 加重처벌

서울지검은 도범이 해마다증가하고 있는것은 국민의신고및 고발정신이 부족한것도 큰 원인이된다고 보고 이경향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난신고서를 제출한 절도피해자의 수사기관 소환을 원칙적으로 억제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도범근절대책」을 마련, 4일 관할지청과 서울시경산하 각 경찰에 시달했다.

이대책에따르면 검찰은 절도신고서의양식을통일하고기재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도난신고서를 제출한 절도피해자는 피해물품의 환부등 특별한사정이있는 경우외에는 수사기관에 피해조사등으로 소환당하지않으며 도범수사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및 신고사실에대한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범인검거때에는 도난신고서로써 피해자진술조서를 대신하는등 새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야간통행금지해제이후 흉포·대담해지는 도범(盜犯)이 날로 증가할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강도범과 흉포·행패도범및 절도중 특히 주택침입절도범은 원칙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적용,구속기소하고 중형(重刑)을 구형함과동시에 감호(監護)청구도 병과하고 실형선고를적극유도키로했다.

또 도범의 온상(溫床)이 되고있는 장물(贓物)사범에 대해서도 종전의처리기준을 강화,구속범위를 대폭확대하고 구속된자에 대해서는 특가법등을적용,중형구형과함께 감호청구를 하기로하는 한편 불구속입건된자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경우에는 벌금액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도범발생 건수는 74년의 7만5천1백19건을 기준으로볼때 81년 상반기6개월동안에만 5만6천1백1건에 달해 49·4%가 늘어났고 강도는 74년의 1천2백46건에서 81년상반기에만 1천4백17건으로 무려2백27·4%가 증가했는데 이밖에도 시민의 신고기피성향으로 미신고된 사건도 상당수에달해 실제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밝힌 도범발생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주택내에서의 절도발생건수는 전체의 36·2%, 강도발생 건수는 40·0%에 달하고 있다.

「殺人」피고인 또 "無罪"

大田地法선고 "自白객관성 결여 證據불충분"

【大田=聯】서울형사지법이 지난1일 검찰에서 사형구형을한 고숙종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4일 대전지법도 살인사건 피고인에대해 증거불충분및 자백의객관성결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김학세부장판사·배석 이인재·황승연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석기피고인(25·大田市中區大寺洞643)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및 시체유기부분에 대해서는 『김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없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행위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6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검찰과 법정에서 이를 극력 부인했고 ▲경찰에서의 자백도 폭행·협박등 고문에 의한것으로 보여지며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자료가 되지않는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김피고인은 지난해 7월29일 하오9시께 대전시 동구 대전천변에서 5년전부터 교제해온 애인 이영순양(24)을 말다툼끝에 목졸라 숨지게하고 강간 살해된것으로 위장한뒤 달아났고 이에앞서 7월23일 밤11시께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약혼녀 김모양(27)을 변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사건등 2가지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14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간여 권오덕검사는 『즉각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飮酒운전警官 輪禍
「加重처벌」외면 피해자 숨지자 뒤늦게拘束

만취경찰관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었다가 뒤늦게 구속됐다. 관할경찰서에서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불구속입건했다가 피해자가 6일만에 숨지자 뒤늦게 조치한 것이다.

지난달28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永登浦區新吉3洞223앞 횡단보도에서 치안본부 외사과 소속 孫德基경장(34)이 서울4가9422호 포니승용차를 술에취한 상태에서 몰고가다 이동네 金承煥씨(55·회사원)를 치어 江南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金씨는 6일만인 3일 상오 숨졌다.

관할 鷺梁津경찰서는 사고당시 孫경장이 만취한 상태였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냈기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가중처벌 조항을적용,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수사해야 한는데도 불구속입건했다가 金씨가 숨지자 뒤늦게 4일상오 구속했고 孫경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孫경장이 金씨측과 합의를보았다는 점을들어 검찰의 지휘를받아 불구속입건했으며 金씨가 숨져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한것』이라고 해명했다.

KAL 점보機 또故障
홍콩서 回航소동

【홍콩4日=聯】승객2백12명을 태우고 4일하오1시30분 홍콩 국제공항을이륙,서울로가던 대한항공(KAL)소속 747 점보제트기 한대가 왼쪽날개 손상으로 이륙30분만에 홍콩공항으로 회항했다고 홍콩정청의 한 대변인이 발표했다.

현지의 KAL 관계자들은 사고비행기가 회항할당시 활주로에는 5대의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사고비행기가 이륙30분만에 무사히활주로에착륙,승객들을 내린뒤정비창으로옮겨졌다고밝혔다.

KAL관계자들은 비행기 왼쪽날개의 알루미늄판이 벗겨지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列車 소매치기 10代 1명구속

서울지방철도청공안관실은 4일 열차를 무대로 승객의 금품을 털어온 朴모군(17·전과1범·주거부정)을 상습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공안관실에 의하면 朴군은 지난달12일 밤9시30분께 木浦발 서울행 제182열차안에서 승객 金미영양(23·전남木浦市北橋洞)의 핸드백에서 현금23만원을 빼낸것을 비롯,호남선,경부선,중앙선열차를 무대로 그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2백89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왔다는것.

가지고 놀던 포탄爆發
南楊州 國校生형제등 7명重輕傷

【南楊州=聯】4일하오3시20분께 경기南楊州郡진접面長峴里 장섬부락앞 하천에서 이마을 주대수군(13·서울서빙고국교5년)과 동생 대훈군(10·장현국교4년)등 어린이7명이 종류를 알수없는 포탄을 가지고놀다터지는 바람에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이날 방학을 맞아 하천에나가 놀다 종류를알수없는 포탄을주어 모래바닥에 놓고 돌로두드리다 터져 변을당했다.

雜魚잡이 漁船침몰
3명구조 1명失踪

【東草=聯】4일상오9시30분께 강원도襄陽郡 縣南面廣律里앞 5백m해상에서 어부 4명을 태우고 잡어잡이를 나갔던 金同山호소속 어영호(1·8톤)가 눈보라속에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3m높이의 파도에휘말려 전복, 선장 金大鎬씨(31)등 3명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으나 黃熙根씨(37·襄陽郡縣南面仁邱里)는 실종됐다.

음반 不法복제
市中에판 4명拘束

서울시경은 4일 불법으로 음반을 복제, 시중에 팔아온 李榮南씨(40·서울江南區論峴洞273)朴洙畯씨(30·서울永登浦區大林1洞90의13)尹在益씨(48·서울東大門區面牧4洞583의3)崔鎬秀씨(52·〃面牧6洞50의35)등 4명을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李씨는 자기집안방에 음반복사기를 설치, 지구레코드사등 유명회사의 음반 1천2백개를제조,개당 2백30원씩 모두2백76만원어치의 음반을 팔아왔으며 나머지3명도 같은수법으로 최저3백여만원에서 최고1천6백만원어치의 음반을 불법복제,시중에 팔아온 혐의다.

36개 後期大學 원서交付 시작

전국36개 후기전형대학(모집인원 3만8백75명)의 원서교부가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각대학원서 교부창구는 교부마감일이 오는 10일이어서 아직 시일이 남아있는 때문인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후기대학의 경쟁률은 대체로 3·5대~4대1이었는데 문교부는 올해도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낼것으로 전망했다.

원서접수일은 8일~10일, 1차전형일은 12일,합격자발표는 18일이고 모집인원이 차지않을 경우에 실시되는 2차전형일은 2월22일,합격자발표는 2월26일에 있게된다.

한편,후기대학의 실기공통관리 원서교부및 접수일은 8일~10일, 1차전형은 12일~17일에 있게되고 합격자발표일은 이달 18일이다.

코펜하겐서 韓國學회의
오늘부터, 古典번역·出版등협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고전및 문학작품번역·해외출판을 위한 유럽지역 한국학연구자회의가 5일부터 3일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파리대학 이옥교수를 비롯, M·도이흘러(취리히大)·W·E·스킬렌드(런던大) 앙드레·파브르교수(파리大)등 유럽지역 한국학연구학자 11명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朴奉植사무총장과 백승길문화부장.

이번회의는 「한국문화와 전통의 해외보급을 확대한다」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한국문학작품및 고전의 번역과 해외출판사업」에 따르는 번역대상작품및 번역자 선정문제를 협의한다.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한국고전과 문학작품을 유럽지역언어(불어·독어·스페인어및 러시아어)로 번역·출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금까지 한국문학선집등 5종을 번역·발간했고 금년에는 한국의 전통연극등 4종,83년에는 稗官雜記등 5종을 번역출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회의에 참석한 朴奉植사무총장등은 귀로에 미국에 들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78년부터 5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자료집 영문판발간 미주지역편찬위원들과 회합을 갖고 영문판전집 상황확인및 조기출판문제등을 협의한다.

嶺湖南에 立春大雪
木浦 18㎝、21년만의最高

◇뒤늦은 폭설로 도시가 온통 눈에 뒤덮인 光州시내。간선도로에서 청소원들이 제설작업을 펴고있다。【光州=聯】

오랜 겨울가뭄끝에 큰눈이 내렸다. 올겨울들어 눈·비가 거의 오지않아 제한급수등 심한 가뭄피해에 시달리던 嶺·湖南과 嶺東지방에 立春인 4일 폭설이 내려 곳곳에 교통이 끊기고 부산과 晋州에서는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했던 국민학교와 일부중·고교가 하룻동안 임시휴업을 했다. 濟州와 西歸浦에서는 11·2㎜~9·2㎜의 비도 내렸다. 이번의 큰눈으로 嶺·湖南일부지역은 부분적으로 해갈이 가능하게됐다. 서울·京畿및春川등 嶺西지방을 제외하고 3일밤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눈은 울릉도가 40㎝,大關嶺33·7㎝,木浦 18·13㎝,光州 7㎝,江陵 9·7㎝,忠武 9·3㎝,부산9·2㎝,麗水 8·9㎝,蔚山 8·3㎝,大田6·8㎝,大邱 6·7㎝,全州 5·8㎝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번 적설량은 三千浦는 43년만에,木浦는 21년만에,麗水는 17년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嶺東지방과 울릉도에는 4일하오까지 계속눈이 내리고있으며 기타지역은 이날 상오중에 눈이 그쳤다.

뒤늦게 큰 눈이 내린 光州·木浦·부산·馬山·晋州등 대도시에서는 차량들이 소걸음 운행을 했고 곳곳에 길이 막혀 출근길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이들지역에서는 공무원·경찰·군인·민방위대·학생들이 동원돼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폈다.

【地方綜合=聯】

嶺東지방 大雪경보

중앙기상대는 4일 하오3시 영동지방에 대설경보를내렸다. 예상적설량은 30~50㎝.중앙기상대는 이날 상오10시 대설주의보를 내렸으나 폭설이 계속되자 하오에 주의보를 경보로 바꾼것이다.

한편 이날상오6시와 7시30분을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던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지방의 대설주의보는 정오를 기해 해제했다.

詐欺도박판 벌여온
1業8명 구속영장

서울동대문경찰서는 4일 세운상가옥상을 무대로 팽이(뺑뺑이)돌리기,장기등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온 야바위단 두목 崔載遠씨(26·폭력등전과7범·鍾路區內資洞207의10)와일꾼安鍾仁씨(31·절도등전과13범·中區黃鶴洞2277)등 일당 8명을 검거, 범죄단체조직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4일상오11시30분께 세운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가던 모회사 수금원 임은호군(20·江東區城內洞485의10)을 상가3층옥상으로 유인, 팽이돌리기판을 벌여 임군이 수금한 돈 37만원을 사취하는등 지난79년12월부터 이옥상에서 같은수법으로 7천5백만원을 사취한혐의다.

부패·인플레·무질서 「부정心理」追放대회
서울淨化委員 1천4백명

◇『부패·인플레·무질서를 추방하는데 솔선한다』 서울시내 각급정화추진위원 1천4백명이 4일 3대부정심리추방 다짐대회를 열었다。

사회정화국민운동 서울시추진협의회(회장 申鶴鎭)는 4일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시정화추진협의회 자문위원,시·구·동정화추진위원,직장및 학교정화추진위원장등 각급 정화추진위원 1천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인플레·무질서등 3대부정적 심리 추방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대회는▲이권청탁,부당한 금품거래,탈세등 일체의 부패요인을 단호히 배격하고▲건전생활을 통해 우리마음속에 도사린 들뜬 허영심리를 자제하는 슬기를 발휘하며▲법을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문화시민의 표상이 되자는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故障배출기 방치
주부 연탄中毒死

4일 낮12시께 서울麻浦區鹽里洞24 孫貞順씨(52·여)집 안방에서 孫씨가 연탄가스에 중독, 숨져있는것을 이웃 변금순씨(51·여)가 발견했다.

장남 金龍德군(21·공원)에 의하면 이날 孫씨는 金군이 출근한뒤 가스배출기가 3일전에 고장난것을 알고 『갈아 달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잠을자다 변을당했다.

버스 20m언덕墜落
승객30여명 重輕傷

【太白=聯】4일낮12시10분께 강원도太白市黃池1洞속칭 송이고개에서 桶里를 떠나 黃池로달리던 신진운수소속 강원5아5006호 시외버스(운전사 金영환·52)가 급커브길을 돌다가 20m언덕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있던 신원미상의 40대여인 1명이 숨지고 咸珍東씨(26·太白市鳳花洞2통1반)등 승객30여명이 중경상을입고 太白시내 서울의원과 장성병원등에 입원중이나 사망자는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와 이데올로기」토론
교회協, 11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金昭暎)는 정부 교계 학계 평신도 각계인사들을 발제자로한 이념문제협의회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永東성결회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에 있어서의 기독교와 이데올로기」를주제로한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데올로기문제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분석비판하며 기독교가 수용할수 있는 한계설정을 모색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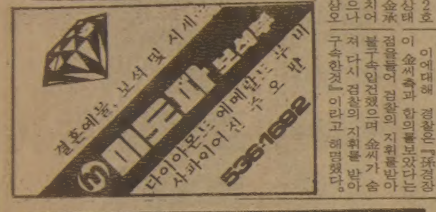
정부측에서는 李奎浩문교장관이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이데올로기 문제의 발제강연을 비롯 전경연(성서와 이데올로기)金正煥(안보적 관점에서의 이데올로기)유인호(사회·경제적관점에서의 이데올로기)전택부씨(한국교회에 있어서 이념문제)등이 발제연사로 나서며 오충일목사가 이데올로기의 실제문제에대한 사례발표를 맡는다.

발제강연에 이어 3개분과로 나누어 「교회와 이데올로기」「교육과 이데올로기」「분단과 이데올로기」를주제로 분과토의 마지막날에는 종합토의도 벌어진다.

횡단보도서 3명轢死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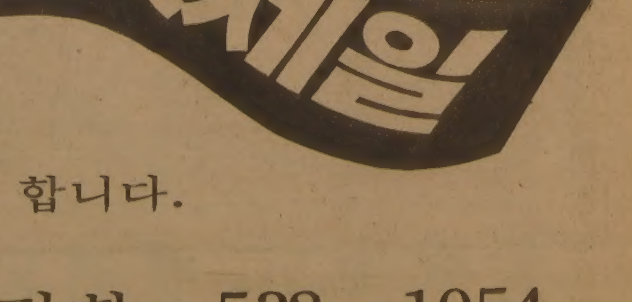
3일하오7시20분께 서울江南區細谷洞18 대왕파출소앞 횡단보도에서 육군5261부대 1515중대소속 518호덤프트럭(운전사 박정근병장·25)이 길을건너던 박찬연씨(61·여·경기 城南市新興洞224)등 3명을 치어 朴씨와 신원을 알수없는 50세가량의남자등 2명이 숨지고 최연홍씨(33·여·서울江南區細谷洞298의3)는 중상을입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



제일 식품

"많이 달라졌읍니다"



소문없이 싸게 팝니다.
1차 왕림해 주셔서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언제든지 가정에 배달해 드리니 전화주문도 환영 합니다.

712 BLOOR ST. W. (아리랑하우스 옆) 전화 : 532—1054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딸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브레즈네프는 核 버튼을 누를것인가 (下)

緊張더해가는 國際情勢…超強國 소련의 黑心을 파헤친다

만 17년간 소련과 東歐圈을 이끌어온 브레즈네프는 지금 한창 크나큰 시련의 늪에 빠져 있다. 밖으로는 헝가리와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폴란드가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고 안으로는 産軍複合體를 배경으로 한 매派가 계속 설치고 있다. 그런 난기류속에서 올 들어 76세를 맞은 브레즈네프는 어떤 여건속에서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있을까. 그는 과연 데탕트의 재구축에 성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대다수 인류에게 서광을 비쳐줄것인가. 최근 소련을 싸고 도는 풍운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波위기는 브의 危機

지금으로서 폴란드에 武力개입을 한다면 데탕트 再구축의 희망은 단절돼, 매派에게 이니셔티브를 빼앗기게 된다.

브레즈네프가 성급한 군사개입을 생각하지않고 탱크대신에 차관이나 석탄, 프리고 연료를 보내고있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 금액은 이미 40억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찌로운 속사정 가운데서 이처럼 거액의 원조를 하고있는것은 크렘린에 있어서 폴란드의 위기는 데탕트 再구축의 위기일뿐아니라 소련경제와 브레즈네프 정권의 위기라는 인식이 절실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폴란드 위기에 대한 서방측의 대응도 저널리즘, 인텔리, 勞組를 제외하면 대체로 소극적인 편으로 소련의 자극을 가능한 한 피해보려고 하는 구석이 있다.

미국은 재삼 소련에 자재를 요망하는 한편 폴란드에 대한 긴급차관, 관계융자, 상환기일 연장 등의 조치로 서방측의 이니셔티브를 쥐고있다.

미국에만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2백60억달러에 달하는 폴란드의 對外 채무에 있어서 큰 채권자인 西歐제국은 소련군이 개입해서 폴란드 경제가 파산하면 金利뿐만아니라 원금 회수도 불가능해진다는 두려움에 싸여 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에 돈을 빌려주고있는 4백60을 넘는 서방측 은행이랑 기업 가운데에는 파산의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고 이 차관의 3할 가까이를 公的으로 보장하고있는 각국 정부도 재정에 구멍이 날 우려가 생긴다.

그럴경우, 불황속의 재정곤융위기로 인해 정권 하나 둘쯤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서방측의 政·財界는 폴란드의 노동자가 지나치게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가운데 西獨을 필두로 폴란드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있는것이다.

이 東西의 원조경쟁은 서로 폴란드를 상대방에게 포섭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줄다리기일뿐만아니라, 폴란드의 파국이 쌍방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브레즈네프 政權과 서방측 政·財界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東西 데탕트의 경제적 측면이고 흔히 말하는 「보드카=콜라」의 실태인것이다.

브레즈네프가 시작한 데탕트는 거기까지 진전돼버린것이다. 췌코사건과 폴란드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의 하나도 거기에 있다.

폴란드뿐인가, 소련도 아직 거대한 對外채무를 안고 있고, 자원개발이랑 기술혁신을 위해 外資며 노 하우를 필요로 할뿐만아니라 늘어가는 국민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량의 서방측 농산물을 늘 필요로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76세를 맞은 브레즈네프。그는 건강했을 때는 하루 12시간 이상씩 정력적으로 政事를 처리했지만 요즘은 측근에게 미루고 있다。

지금의 싯점에서 볼때 소련이 폴란드처럼 파산상태를 겨우 면하고 있는것은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동안의 경제사정이 괜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파탄에 따른 정치 정세나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문호를 더욱더 개방해서 서방측과의 경제관계발전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금 크렘린에서 그 절실함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것은 바로 브레즈네프이다.

□世界최대 兵器生産

크렘린이 日·蘇 관계 정상화 25주년을 기해서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에의 추파를 일본측에 보낸것도 그 절실함을 고백하는것이라고 할수밖에 없고 세계의 金 시세가 요즘처럼 바닥을 헤매고 있는것은 소련이 외화를 끌어 모으기 위해 金을 대량으로 취리히와 런던의 金시장에 방출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브레즈네프의 가장 큰 적은 폴란드의 自主管理 勞組인 連帶도, 미국의 레이건도 아니다. 실질적인 적은 소련 內部의 골칫거리인 産軍複合體인 것이다.

현재 소련政府省廳 62개 가운데, 軍需工業 관계의 省廳이 12개를 헤아리고 黨中央委員의 33%가 「産軍複合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黨中央委에 있어서의 현역군인의 수도 28명, 전체의 8·8%로 흐루시초프 시대의 3배로 불었다. 이 강력한 압력집단은 「자본주의의 포위로부터 사회주의의 조국을 지키고, 세계의 사회주의·민족해방세력을 지원한다」는 정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버터보다는 미사일을 요구하고있다.

폴란드破局은 東西에 不利益
브의 最大敵은 內部의 매派고

70년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급격한 퇴조에도 불구하고, 아니 퇴조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련이 데탕트의 뒤에 숨어서 군사노력과 대외간섭을 확대해온것도 그들의 압력을 벗어날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근 공표된 美國 국방성의 정보 분석기관 DIA(國防情報局)의 보고가 지적한대로 소련은 세계최대의 시설과 규모를 지닌 세계최대의 兵器·생산국, 무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DIA 보고에 따르면 소련의 兵器공장의 규모는 과거 5년간 年 3%의 비율로 확충돼 왔고 군사비도 계속 실질적으로 年 4%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한다. 뿐만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제국에 대한 원조도 71년의 20억달러에서 80년에는 2백40억달러로 뛰어올랐다고 한다.

이처럼 産軍複合體와 매派는 정상을 벗어난 군비확장과 지나친 對外 간섭으로 결국 국민경제의 조화를 잃게 했고 대외 마찰을 초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국민으로부터 불만을 사기에 이르렀고 안정을 지향하는 공산귀족계급에게는 위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이 때문에 브레즈네프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상 이들 광범위한 反 매派의 위구와 불안을 배경으로 지난해 봄의 26회 黨大會를 계기로 매派의 돌진을 저지하기에 이른것이다.

매사에 신중하기 짝이 없는 브레즈네프에게 있어서 그것은 70년대 초두의 데탕트에 따른 경제적 문호개방에 다음 가는 결단수없는 결단으로 아마 생애 최후의 투쟁이 될것이다.

전임자인 흐루시초프가 과감한 軍縮策에 따라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단축해버린것처럼 브레즈네프의 産軍複合體와의 투쟁도 나관을 不許한다.

다만 故 흐루시초프와는 차이가 있어, 브레즈네프는 함부로 달리는것을 삼가고 매派 자체의 실책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 독주를 막는 찬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소련 매派노선은 비틀대고 있고 주도권을 되찾은 브레즈네프는 데탕트 재구축에 나섰다。

그 하나가 아프가니스탄戰局을 수렁化시킨것이고 이제 또 하나는 핵 미사일 SS-20 實戰 배치의 오산이다.

매派쪽에서 보면 戰車, 戰術空軍, 병력, 火砲등으로 유럽지역에서는 단연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이 西歐에 배치하고있는 전술핵병기의 「눈위의 혹」이었다.

그때문에 이 전술핵을 확실히 때려부술수 있는 個別誘導多彈頭 中距離核미사일 SS-20을 즉각 소련 서부에 배치해서 이것으로 완전한 優位를 차지할수 있었다.

□核戰略

SS-20의 배치로 對소戰力이 결정적 열세에 빠지는 위협에 직면한 서방측은 79년末의 NATO(北大西洋條約機構)수뇌회의는 미국의 중거리 核미사일과 巡航미사일 합계 5백72基의 유럽 배치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은 스스로 초래한 마이너스에 아연했지만 브레즈네프는 이 매派의 실수를 기화로 해서 비둘기派 노선에의 방향전환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의 黨大會에서 「戰域核의 유럽배치에 관한 연기案」을 제출한 것을 필두로, 6월말 소련을 방문한 브란트 西獨 社民黨 黨首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유럽 核軍縮교섭을 시작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 교섭개시에 즈음해서 NATO의 核戰力을 교섭기간 중에 증강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소련도 같은 기간중 SS-20의 신규배치를 정지하겠다』고 언명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産軍複合體를 대표하는 우스티노프 國防相까지도 지난해 7월25일字 프라우다 紙上을 통해 숫자를 열거하면서 戰域核 제한교섭의 필요를 역설, 유럽배치가 끝난 SS-20을 삭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잇따른 양보는 평소의 소련외교에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이례적인 조치였다.

우스티노프는 논문에서 「戰域核 유럽배치계획이 유럽을 戰場으로 만듦에 따라 미국 자신은 소련의 보복 공격을 면하려고 한다」「미국은 군비확장경쟁에 도전함으로써 소련경제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經濟惡化…먹고살기위해선 데탕트 꼭必要
産軍複合體의 거센 反撥저지할 對策없고

그렇게 되자 전략核미사일의 상호 억지력으로 미·소는 직접 싸우지 않는다고해도, 만일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東西유럽이 戰域核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때문에 西歐와 東歐, 거기에 소련 西部는 잿더미로 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소련의 主要部가 파멸돼도 미국은 아무 상처없이 남을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생각해 볼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에 바짝 정신이 든 레이건 정권은 수격을 벌이려고 中性子폭탄의 제조와 국내 저장을 발표했다.

이 中性子폭탄이 유럽에 배치되면 압도적 優位를 자랑하는 소련 戰車軍團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유럽 정면의 소련의 군사적 우위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덕분에 크렘린은 유럽에서의 核軍縮교섭을 점점 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고자세적인 태도에 직면해서 매派의 반발은 강하다.

오가르코프 제1國防次官겸 참모총장은 黨理論誌 「코뮤니스트」誌上에서 동원체제정비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가볍게 본다』고 소련 국민에게 경고했고 지난해 9월초, 소련 陸海空3軍은 우스티노프 國防相의 직접 지휘 아래 소련 서부 국경과 발트海에서 예비역을 포함한 10만의 병력을 동원, 戰後최대의 훈련을 감행했다.

이 훈련은 인접국인 폴란드의 모반에 압력을 가할 목적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그것은 미국파의 타협을 통해서 미사일로부터 버터에의 전환을 꾀하려고 하는 브레즈네프에게 産軍複合體가 벌인 데먼스트레이션이기도 하다.

中性子彈유럽配置땐 蘇파멸
세계적긴장 누구도 豫測못해

□時間과의 투쟁

솔직이 말해서 브레즈네프는 매派가 설치는것을 저지할만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그 一端을 西歐측에 기대하고있다.

그 기대의 하나는 西歐자체가 유럽에 배치된 미국核戰力의 확충에 반대하는것이다. 그런데 틀림없이 西歐각국에는 반대의 불길이 높아가고 있고 크렘린의 선전기관도 그것을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브레즈네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스스로 西獨을 방문하는 결단을 내렸다. 브레즈네프의 또 하나의 기대는 레이건 정권 자체의 정책 전환이다.

레이건 정권이 크렘린 내부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련을 따라 잡을 자신이 있는것만은 틀림없다.

어쨌든 産軍複合體에 대한 브레즈네프의 최후의 투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소련의 권력기구는 黨中央委, 각료회의, 최고회의의 3개 기관이 黨政治局을 통해 頂點인 黨書記長에 집약되는 피라미드型을 이루고 있다.

◇1978년 노동절식장에서 관중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수뇌들。좌로부터 코시긴, 브레즈네프, 수슬로프, 한사람 건너 키릴렌코。

政治局의 회의는 보통 週 1회, 크렘린에서 브레즈네프의 사회 아래 열려, 이미 밝힌대로 처리될뿐아니라 審議나 討論, 議決이 모두 사회자 재량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했을 때의 브레즈네프는 政治局 會議 이외에도 크렘린의 집무실에서 週末을 제외하고는 매일 10시간 내지 12시간 일했고 외국 요인과의 회견, 접객과 환송, 외국방문, 국내 시찰, 각종회의랑 집회 출석 등을 정력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76세에 접어든 현재는 政務의 상당 부분을 측근인 키릴렌코와 체르넨코 혹은 다른 크렘린 요인들에게 떠맡기고 있다. 그처럼 브레즈네프의 영향력은 약해지고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브레즈네프는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그가 행사할수있는 권력을 최대한으로 행사, 최후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시간이다. 만약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데탕트의 재구축이 성공하면 레오니트·이리치란 이름은 우라지미르·이리치(레닌) 이상이 될것이다.

〈東京=白承偉기자〉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T DOESN'T WORK.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시계를 차고 있지 않고 옛날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You're not wearing your new watch.(새로 사준 시계를 차고 다니지않는구나) 하자 아들이 It doesn't work. 라고 대답하였다.

It doesn't work. 란 글자 그대로 「일하지 않다」, 「작동하지 않다」즉, 「고장났다」는 뜻으로 미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라디오가 고장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This radio doesn't work. 하면 될 것이고, 「이 녹음기가 고장났다」는 This tape recorder doesn't work. 하면 된다. 물론 이때, ing형을 사용하여 This tape recorder isn't working. 라고 하여도 같은 말이 된다.

물건이 고장났다는 말은 out of order를 쓰는 수도 있으나, 다만 다른 점은 out of order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사람이 다같이 사용하는 공공 물건인 경우에 주로 쓰여지며, 특히 고장난 물건에 「고장 표지」로 부착될때 쓰인다.

예를 들어서 「이 승강기가 고장이다」, 「공중 전화가 고장이다」,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This elevator(pay phone, traffic light) is out of order. 라고 한다.

개인소유의 시계가 고장났다고할 때는 out of order 보다는 My watch doesn't work. 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A : You're not wearing your new watch.
B : No, it doesn't work.
A : Doesn't work?But you got it only a month ago.
B : They don't make them like they used to.
A : Do you know what's wrong with it?
B : I think the mainspring is broken.
A : 새로 산 시계를 차고다니지 않는구나.
B : 아니오, 고장났어요.
A : 고장? 한달전에 샀지않니?
B : 옛날처럼 만들지를 않아요.
A : 뭐가 고장인지 아니?
B : 아마 큰태엽이부러진것같아요.

※pay phone: 공중 전화 mainspring: 큰태엽
【발음】 doesn't: 대화시는「다슨트」라고 t를 파열시키지않고 「다슨」이라고 함.

I'M NOT MYSELF TODAY.

오늘따라 typist(타자수)인 Betty의 행동이 이상하다. 평상시같으면 금방 되는 typing도 30분 이상이나 걸리고, 그것도 오자 투성이다. coffee를 엎지르고 곁에서 누가 무슨말을 걸어도 엉뚱한대답을한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일인가?) 라고 물어 보았더니 My father had a heart attack last night and he is in the hospital. I'm not myself today. (저의 아버님이 간밤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에 계십니다. 오늘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라고대답하였다.

I'm not myself. 란 이같이「내정신이 아니다」라고할때 사용하는표현이다. I'm under the weather. 란말도있다. 이말은 날씨밑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not feeling well physically (몸이 좋지 않은것) 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몸이 좋지않다」라는 말이다.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today, so I'd like to go home early. (오늘은 몸이 좀 좋지않아서 일찍 집에 가봐야겠읍니다) 이같이할수있다. 같은말로는 I don't feel well. 이있다.

A : We had a meeting at 10 o'clock. Where were you?
B : I'm sorry. I guess I forgot.
A : Forgot? How could you forget?
B : I don't know. I'm not myself today.
A : What's wrong?
B : Maybe I'm just tired. I haven't been getting much sleep.
A : 10시에 모임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니?
B : 미안해. 잊었던 모양이야.
A : 잊었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
B : 모르겠다. 오늘은 내 정신이아니야.
A : 뭐가 잘못됐니?
B : 아마 피곤한 모양이야. 요즈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

※ heart attack: 심장마비 (=heart failure) heartache 마음의상처

본 란의 담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서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BETA(36불)
VHS(65불)
■U. S. 머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60)

푼수 없이 경찰서에 들어가려다가 주민등록증을 양복주머니에 놓고 나온 것을 알았다。나는 공중전화로 박형사를 찾았다。전혀 기억에 없는 형사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박형사는 자리에 없었다。나는 내 이름을 메모해 달라고 부탁했다。내가 다녀갔다는 흔적이나 남겨두고 싶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형사가 경찰서에서 기다린다는 전화를 받았다。나는 은근히 부아가 돋았다。경찰서라면 괜히 기웃거리기조차 싫은 곳이었다。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자생한 알레르기인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경찰서 근처에만 가도 구두끈이 풀어졌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 **지난줄거리**
>
> 도치는 보통 사내가 아니었다。다그쳐도 버티기만 했다。홍찬은 지하실의 방에있는 여자들을 한방에 몰아놓고 바람피우려는 여자들 따귀를 갈겨주었다。왜정때 여학생을 정신대로 보내자고 주장했던 현직여성계인사도 그속에 끼여있어서 손찌검을 한다。도치를 다잡아 수향을 구출한 홍찬은 성주학의 버릇을 고쳐놓고 빠져나왔다。집엔 형사가 다녀갔다는 불길한 소식이 기다린다。

경찰관과 얘기해 본 것도 오래된 것 같았다。

대학교 1학년 때였다。낮술을 얼큰하게 들이키고는 시청앞 육교 밑에서 지나다니는 여자들 속곳구경을 했다。술 취한 녀석들과 얼크러져서 지나가는 여자들 아랫도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보통 재미는 아니었다。

우리가 낄낄거리는 걸 모르고 올라가는 여자들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눈치 빠른 여자들은 치맛단을 움켜쥐고 울상을 지으며 올라가고 있었다。우리는 더 짓궂어져서 여름옷 사이로 노출되는 여자들의 살점에 집수를 먹이기까지 했다。

「저건 90점이다。」

「너 똑똑히 본 거야?」

「여자 속살은 무조건 90점 주는 거야 임마。」

「맞다。여자 속살은 모두 A학점 주는게 신사의 태도인 거라구。」

「바람 좀 불어야 할 거 아냐。모처럼 눈운동 좀 하겠다는 거 말릴 놈 있음 나와 봐。」

「앙큼하게 속으로만 보고싶어하는 사내새끼들 보다야 우리가 양심적이구 말고。」

우리들은 되나 안되나 떠들고 있었다。신사들이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그것은 서울의 무관심이었다。서울사람다우려면 그 정도는 눈 딱 감고 걸어가는 재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내가 계집애와 팔짱을 끼고 가다가 우리 전체를 향해 무섭게 눈을 떠보였다。

「이봐、남자사람。눈깔 똘똘하게 굴려。우리 쌀밥 먹고 나온 놈들야。」

「우린 뭐든 질경질경 밟는데 소질이 있을 거야。」

「이쁜 기집애 끼고 다니는 놈들 보면 창자가 소릴 질러서 난 더 못 봐줘。」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떠들었다。그 사내가 눈을 내리깔고 걸어갔다。우리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육교 계단 양쪽에 늘어붙어 있는 우리들 때문에 여자들은 통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먹고 살거 없으면 속옷 만들어서 입에 풀칠 하려고 그런다。치마를 사뿐히 들고 걸어가라。」

내가 악 쓰듯이 소리질렀다。그래도 멀쩡한 남자들은 모른체했다。

「이 의리없는 사내새끼들아。속으로 꽁꽁거리지 말고 쫓아와서 다리몽둥이를 분지르든지 해얄 거 아냐? 호랑말코 같은 새끼들아。」

사람들은 더 조용하게 걸었다。저쪽에서 경찰관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한 녀석이 내 옆구리를 찔렀다。

「순사아저씨다。튀자。」

나는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순경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튀자니까。어서!」

녀석은 두어 발짝쯤 떼어놓고 안타까와했다。

「사내란 튀는 법이 아냐 임마。책임질 건 책임지고 깨질 건 깨지고 그러는 거여。맘 약한 놈은 튀라구。」

내 이 한마디가 약이었다。아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나는 순경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뭣들 하는 거야?」

늠름하게 서서 순경은 물었다。나는 그 앞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한잔 했지요。기분도 짜하고 해서、여자들 속옷 구경한지도 오래고 해서 저 원수같은 놈의 육교 밑밑에서 구경 좀 했읍니다。몇개 보지도 못하고 이꼴이 됐읍니다。」

당당한 내 꼴을、노려보던 순경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돌았다。

「납대문 옷가게 가면 세고 센 걸 뭐러 여기서 보려고 하나?」

「그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형님도 아시잖아요。젊은 놈들 기분 좀 내본 걸 가지고 끌고가는 불상사가 나서야 되겠읍니까? 형님도 우리만할 때 그렇고 그랬잖습니까。」

순경은 잠시 행인들과 우리들을 번갈아 보았다。행인들 눈동자 속에는 우리를 잡아가라는 묵시적 동의가 들어 있었다。

「빨리 가라。어서!」

순경이 돌아섰다。우리는 절바닥에서 거수경례를 붙이고 어깨동무를 하고 뛰기 시작했다。

「우린 경찰관 아저씨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런 구호를 외치며 뛰었다。그 뒤로는 한번도 아름답게 경찰관을 만난 적은 없었다。

노출된 女子 속살엔 無條件 90점 주는게 신사 도리야
자세히 말 할테니 무슨事件 혐의자인지 알려 주십쇼

경찰서 앞 다방에서 나는 박형사를 만났다。좀 매섭게 생기고 모질게 생겼을 거라는 내 추측이 빗나간 용모였다。남대문 시장바닥에서 멸이로 옷장사하는 아저씨같기도 했고 리어카에 무우 싣고 다니다 온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었다。텔리비전에서 보던 말끔한 신사복의 형사만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비교적 운이 좋았던 사내였다。주먹질깨나 하고 살아왔지만 경통으로 폭력범이 되거나 감옥에 끌려 들어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용건부터 말합시다。피차 피곤할 테니까 말입니다。」

「죄없이 왔읍니다만 형사님이 친절하니까 괜히 가슴이 조여지는데요。」

「그럴건 없구요。지난 4일 밤이죠。통행금지 없어지던 날이니까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그날 오후6시부터 5일날 아침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못할 건 없지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그러니 서로 피곤하지 말고 그날 얘기를 합시다。」

「무슨 일인지 알고 얘길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다 설명할 순 없고…그날 사건이 있었어요。학생은 혐의가 가는 사람 가운데 한사람이지요。」

「제가요?」

「그래요。나 바쁜 사람입니다。급하게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니까 협조 좀 해주쇼。」

「까짓 거 못할 거야 없지요。그러나 기분은 좋질 않은데요。괜히 뒤가 구려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박형사는 수첩을 펴놓고 피곤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았다。아까보다는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저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애인은 하나 있읍니다。통금도 풀린다고 하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해서 초저녁부터 쏘다녔읍니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과 돌아다닌 곳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다。박형사는 아무 말없이 내 조리있는 말을 메모해 나갔다。

「그 아가씨 집에 배려다 준 게 0시 30분이었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1시 좀 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집에서 자고 아침에 아홉시 쯤 일어났다는 얘기죠?」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물었다。나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거라고 말했다。박형사는 몇가지 더 묻고는 악수를 해주었다。

「이제 무슨 사건인지 좀 알려 주십쇼。궁금해 죽겠읍니다。」

「협조해 줘서 고맙소。나중에 알게 될 거요。고맙소。」

박형사는 찻값을 내고는 휘적휘적 계단을 내려갔다。나는 등 굽은 박형사의 뒷모습을 쳐다보고는 뒤따라 내려왔다。

무슨 사건 때문에 나까지 조사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비밀을 지켜야 할 사건이라면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았다。그렇다면 멀쩡한 내가 왜 조사를 받고 혐의자 대상에 올라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나님。혹시 내가 미우니까 옭아넣어서 고생 좀 시키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하나님이 아다시피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내 뒤를 쫓아다녔으니까 잘 다 알거 아닙니까。나쁜 녀석들 혼내주고 못돼 먹은 친구들 버릇 좀 고친게 뭐 잘못된 겁니까? 혹시 내가 손본 녀석 가운데 큰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저러는거 아닙니까? 이런때 귀띔좀 하세요。입 다물고 있어봤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하나님을 누가 믿을 것이며 하나님을 누가 섬길것인가를 말입니다。돼지요? 개나 말이요? 아니면 여우와 늑대들이 섬길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깁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그리고 사람이 알아주기 때문에 존재한다는걸 잊지 마세요。사람편 좀 들어주세요。사람들을 종이나 가축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약에 내가 잡혀가면 하나님이 보증 좀 서주세요。하나님이 보증선다면 나를 잡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죄 없는 사람을 위해 보증서를 써주는 것도 하나님의 엄연한 임무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게 궁금한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나는 매일 한번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다。술 취한 사람처럼 물어본걸 또 물어보고 한 얘기를 또 하곤 했다。나는 어렴풋이 이번 혐의가 젊은 녀석들과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김갑산 회장네 식구들과의 묘한 사건에 내가 말려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혜도 두번이나 불려가서 내가 첫날 진술한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꼬치꼬치 조사 받는 곤욕을 치렀다。다혜는 노골적으로 싫은 눈치를 했다。사건의 내막도 모르면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나를 의심하다니、이거 사람미치고 환장…펄쩍 뛰겠네
혐의 벗는 날 그새끼 코뼈를 작신 부러뜨리고 말테다

다혜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내가 몰래 무슨 큰 사건을 저지른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확신이었다。내 행동이나 성격으로 미루어 봐서 충분히 큰 사건을 저지르고 완전범죄를 꾸며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았다。

설명할 길이 없었다。사건의 내용을 안다면 논리적으로나 상황증거를 가지고 해명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사건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경찰서 안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철저한 조사라면 귀찮게 밖으로 불러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어느날 아침이었다。신문을 펼쳐들고 나는 깜짝 놀랐다。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건에 내가 연루되어있었다는 걸 알았다。

박명호군 유괴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국민학교 4학년짜리의 유괴사건이 이렇게 큰 충격을 준것은 그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대재벌인 김갑산 영감이란 사실이었다。

그것은 정말 충격이었다。박명호 소년의 아버지는 김갑산 영감의 사위이자 내가 치도곤이를 냈던 비서실장이었다。나는 사건의 윤곽을 대번에 짚을 수 있었다。내가 혐의자 명단에 버젓하게 올라간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사건은 공개수사로 확대되어 명호가 유괴되던 당시의 상황과 그 뒤에 날아온 협박편지와 전화 내용이 상세하게공개되었다。

명호는 전교 수석을 하는 수재형의 소년이었다。그의 아버지가 대재벌 그룹의 비서실장이란 사실만 가지고도、그리고 그 소년 외할아버지가 김갑산이란 사실만 가지고도 이 유괴사건의 배경은 돈이었다。

명호는 저녁식사를 한뒤에 아파트 공원에서 검정색 자가용차로 납치되었다。협박편지엔 현금 1억원을 요구하는 내용과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씌여 있었다。악필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글씨같아 보였다。

사건이 공개수사로 바뀌면서 김갑산 영감은 역사상 최고 액수의 현상금을 내놓았다。내가 몇번이나 김갑산 영감과 접촉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김갑산 영감도 나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나는 공개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번이나 경찰서로 끌려가 반복되는 조사를 받았다。박실장을 구타한 사건과 박실장의 비밀금고를 털어낸 일 때문에 쉽게 혐의가 풀리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재씸했다。그렇다고 가슴을 열어 보여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줄 재간은 없었다。수사가 진행되는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명호를 유괴했다는 겁니까?」

하도 귀찮아서 이렇게 뻗대 보았다。박형사는 지친 표정으로 혐의가 짙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만 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날 의심하는 겁니까? 이거 생사람 잡지 말고 얘기 좀 해 주십쇼。」

「생각해봐 이 사람아。최근에 박실장하고 감정 산 사람이 자네밖에 없잖은가 말야。박실장 입으로도 자네밖에 원한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그리고 자네 행동을 조사해 봐도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구。자네가 뭐 잘났다고 남의 정안 일에 뛰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그랬느냐 말야。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안 사람들이 모두 자넬 의심하니까 우리도 자네가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를 가려내서 우리도 좀 편해져야 할 거 아닌가 말일세。」

「김갑산 영감도 날 의심합니까?」

「그 영감은 자넬 믿더구만。」

「그럼 누가 의심한다는 겁니까?」

「얘기했잖아。박실장과 박실장 마누라가 자네밖에 의심할 데가 없다는 거야。박실장은 자네한테 맞아서 아직도 몸이 성칠 못해。」

「걸려도 되게 걸렸네。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만 하면 그땐 그 새끼 코뼈를 작신 부러뜨릴 겁니다。이거 사람 환장하고 펄쩍 뛰겠네。」

박형사는 나를 노려보았다。내 말투가 싫었던 모양이었다。

「지금 내 심정 돼보십쇼。그 새낀 그냥 두고 싶은지。」

「그건 알아。그러나 자식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거 생각해 봐。」

「멀쩡한 자식 이런 꼴 당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알아보소。아마 박형사님을 물어뜯어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조사해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내게 분명한 혐의가 있읍니까?」

「없으니까 캐는 거 아냐。」

「캐봤자 별 수 없읍니다。난 범인이 아니니까요。그리고 애나 유괴하는 그런 치사한 놈은 아닙니다。돈 없으면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런 치사한 짓은 않는다구요。소매치길 하든지 남의 집 담을 넘어가도 나는 먹고 사는 놈예요。지금이라도 김갑산 영감 한테 가면 몇백쯤은 얻어다 쓸 수 있는 놈이라구요。」

박형사는 나를 노려보았다。눈동자 속에 원망의 그림자가 스쳐가고 있었다。

「그래서 넌 팔자 임마。보통으로 살았으면 벌써 나갔을거 아냐。」

「내 참、내 성질대로도 못살바엔 차 죽고 말지요。눈뜨고 못볼 거 많은데 어떻게 그냥 살란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다。」

우리들의 입씨름은 매일 그런 식이었다。가짜 범인이 나 여기 있소 하고 손들고 나오기 전엔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다른 범죄는 신문의 사회면을 심심찮게 만들거나 사람 사는 맛에 양념이거나 생각하고 봐주실수도 있지만、어린애를 유괴해 가는 이 더럽고 치졸한 범죄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처치해 주십쇼。

다른건 몰라도 유괴범만은 씨를 말려 달라구요。그런 녀석들은 데려다가 지옥에 있는 제일 독한 마귀한테 손좀 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문은 중국사람들이 써먹던 대나무 형벌이랍니다。발가벗긴 뒤에 대나무 뾰족한것을 맨살 위에 대고 꽁꽁 묶은 뒤에 대나무 한개를 쑥 잡아 빼면 살점이 묻어나온답니다。다시 죄어갖고 한개를 빼고 또 죄고 한개를 빼는 형벌을 하나님은 아시겠죠。유괴범들은 지옥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고문을 해버리시라구요。

독할 땐 독해야 돼요。하나님。맘 독하게 먹고 근절시켜 주세요。하나님 좀 한번 믿어보게 말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好色常情

한국의 妓生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妓生이 高麗初에 제도화되었고, 손님에게 厚待하기 위하여 侍妾하면 慣習의 所產이라고 말하였지만 기생제도화의 원인을 다각도로 관찰하기 위하여는 한국인의 性醫術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기생이 탄생된 이유가 한국인 특유의 성관념의 產物이라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房中 秘術

옛 한국인들은 情慾이 인간의 本能이며 본능을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즉, 조물주가 창조한 만물중에서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존귀한 性慾을 지니고있다. 따라서 사람은 선천적으로 陰陽이 조화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전혀 남녀관계를 갖지 않으면 자연의 이치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결국엔 건강을 해치고 몸에 종기가 생기고 상기되어 정신병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죄수나 홀아비·과부는 자주 병에 걸리고 수명이 짧다. 반대로 음양조화의 원리를 깨친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節慾補精의 여러 가지 방법과 房中秘術의 조절로 不老長生을 추구하는 養生醫學書가 편찬되었다. 이미 신라시대에 방중술에 관한 약의 효능을 설명한<新羅法師秘密要術方>과 방중술의 비법 즉, 남자의 성기를 단단하게, 혹은 불멍이처럼 단련시키거나 시간을 오래끄는 방법까지 수록한<新羅法師秘密方>이 편찬된 것은 한국인의 性醫學이 신라시대부터 남달랐다는 증거다.

이러한 한국인의 성의학을 뒷받침할만한 이론을 유럽의 한 의사가 최근 발표했다. 그 요지를 간추려보자.

성행위를 장기간 중단하면 남녀간의 교제는 물론 여자끼리의 친구관계, 직장상사·동료, 이웃과의 교제에 균형을 잃어 공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증세가 깊어지면 까닭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아침에 일어날 기력이 없고 출근하기가 싫고 세끼 식욕이 놓어나며 아무것도 먹기 싫어진다. 또 육체적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불면증·변비증·두근거림·현기증·배앓이·설사·식은 땀·고혈압·관절통·업마름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젊음을 유지하려면 짜릿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

□禁慾病

李益成은 朝鮮朝 正祖(在位1776~1800)때 名醫였다.

어느 벼슬아치의 스무 살된 아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 여러 의원에게 보이고 百藥을 썼어도 효험이 없으므로 이익성을 초빙했다. 이익성이 환자의 집에 이르러 안뜰을 지나다가 보니 남녀 추녀 위에 돈이 가득 찬 구리 그릇 대여섯 개가 보였다. 이상히 여겨 무슨 까닭으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나의 아내가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점장이에게 물었더니 귀신 탓이라 하여 기도하려 그럽니다』고 환자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이익성이 코웃음을 치며 『나는 의사일 뿐아니라 점도 잘 치니 내가 하지요』하고는 그릇을 옮겨다가 벌려 놓은 뒤 엽전 하나만을 꺼내 巴豆 두어개를 사오라 하였다. 파두를 사오자 그것을 벙어리 환자의 콧구멍에 넣었다. 그랬더니 잠시후 환자가 재채기를 하고 곧 말을 하는게 아닌가. 아버지가 하도 신기하여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이익성의 대답은 이러했다.

『젊은 사람의 情慾이 밤에 넘치나 참은 탓으로 火氣가 위로 올라와 肺의 金氣를 이겼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壺山外史>

그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本能의 해소를 위하여 적령기에 혼인하도록 권장했고, 가난하여 혼인하지 못하는 노처녀·노총각에게 官費로 혼수를 장만해주어 혼인시켰으며, 고을에 未婚男女가 많으면 守令의 人事考課는 下考였다.【筆者註 下考이면 좌천·파직됨】또한 成婚하지 못하고 죽으면 가장 가엾은 寃鬼로 여겨 넋끼리라도 혼인시키거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길목에 장사지내어 짓밟히도록 하였다.【짓밟히는 것을 성행위로 간주하였음】異性의 고의나 적삼을 관위에 얹는 것도 合婚·性交의 의미를 지녀 위안행위였다.

또 名士들이라도 本能을 감추지 않고, 本能에 대하여 화제 삼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李恒福은 그 나름의 本能論으로 참수당할 淫淫者를 구제하기까지 한다.

□面隱·退溪의 色論

宣祖(在位1567~1608)때의 일. 당시의 國法으로는 궁녀가 간음하면, 궁녀를 궁궐 밖으로 내쫓고 사내는 사형에 처했다.

오성대감 이항복은 당시에 都承旨였는데 그의 머슴이 궁녀와 간음한 죄로 매우 난처했다. 어쩐단 말인가. 범법자이니 머슴의 처벌이 당연하나 처벌받도록 버려 두자니 안타깝다. 그 보다도 젊은 남녀의 通情이 무슨 죄까 하는 생각이다.

마침 궁궐에서 입궐하라는 전갈이 왔다. 오성은 일부러 지체하여 늦게 입궐 했다. 선조가 언짢은 표정으로 왜 이리 늦었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항복은, 어명을 받고 들어오다가 종로 저자에서 사람들이 와자지껄하기에 연고를 알아보다가 늦었노라 대답한다. 그리고, 『모기 한마리와 말벌이 만나 말벌이 모기더러 '난 배가 너무 뚱뚱한데다가 陰門마저 없어 배설할 길이 없으니 너의 날카로운 부리로 내 몸에 구멍하나를 뚫어 주게나 하자, 모기가 대답하기를 그게 무슨말이냐. 요즘 풍문을 들으니 이승지댁 문지기는 생시부터 생긴 구멍을 뚫었는데도 엄중한 벌을 받는거라는데 내가 만일 생시부터 없던 구멍을 뚫는다면 죄가 그보다 무겁지 않겠니? 누굴 죽이려고 그런 못된 주문을 하는거냐, 하는 바람에 구경꾼이 몰렸기에 구경하느라고 늦었사오니, 늦은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는 바람에 임금이 빙그레 웃고 머슴을 처벌하지 않았다 한다.

圃隱 鄭夢周에게서도 적나라한 본능이 노출되고 있다.

정몽주(1337~1392)더러 어떤 사람이 세가지 과실이 있다고 말하자 정몽주가 말해보라 하였다.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맨 먼저 자리에 앉아 제일 늦게까지 마시는 일과, 唐物(중국 물건)을 좋아하는 버릇이라고 지적하고 마지막으로『자네는 色에 淡然하지 못하다』하니 웃으며『好色은 인간의 常情이다. 孔子도 착한 일을 색을 좋아하듯이 하라 하였으니 공자도 色이 좋음을 모르지 않았네』대답하였다는 것이다.

退溪(李滉 1501~1570)와 南溟(曺植 1501~1572)도 예외가 아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퇴계가 남명더러『酒色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외다. 술은 그래도 참기 쉬우나 色은 참기 어렵소이다. 宋康節(宋邵雍)의 시에 색은 사람이 그것을 즐기도록 만들 힘이 있다고 했는데 역시 색은 참기 어렵다는 말이다. 당신은 어떠시오』

그러자 남명이 웃으면서

『색에 관한한 패전장군이니 나에게 묻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시 퇴계가

『나는 젊었을 때 참으려 하였으나 참을 수 없었소. 중년부터는 제법 참는데 힘에 부쳐 그런 것은 아디오』

오성·포은·퇴계·남명같은 고매한 학자들도 性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했으니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양(男·女)의 조화가 자연의 섭리이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우기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長生不老의 方便이라고 믿었으니까.

□立身의 秘密

그런 실례를 沈喜壽와 一朶紅의 情事에서 본다.

沈喜壽(1548~1622)는 宣祖때 左議政에까지 오른 文臣인데,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妓房 출입이 잦던 건달패 시절이 있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기생 일타홍을 만난다. 일타홍은 금산 태생으로 얼굴이 아름답고 노래와 춤이 뛰어난 기생이었다. 아름다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꾀는 법이라 심희수가 일타홍을 보자 옆자리에 앉아 수작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타홍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는 눈짓을 한다. 따라나가니 도련님 댁이 어디냐고 묻는다. 신바람이 나서 집을 일러주었다. 그랬더니『먼저 가십시오. 날이 저물기 전에 찾아가겠으니 기다리셔요』

집에서 기다리니까 약속대로 나타난다. 그러더니 술자리를 함께 하고, 쉬게 잠자리에 든 다음 이튿날 심희수의 老母앞에 나아가 조아리는게 아닌가.

『賤妓는 금산 태생으로 김타홍이라 부릅니다. 오늘 某재상댁에서 댁의 공자님을 뵈었는데 좌중의 여러 사람이 미치광이처럼 대하는것을 보았으나 천한 제가 뵈옵기에는 장차 貴人이 되실 기상입니다.

다지 그 기상이 막히고 狂態를 부리시게 된 것은 色에 주리신 까닭입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면 어떤 지경에 이르실까 염려되니다. 그 힘을 잘 이용하면 반드시 이롭게 되고 일이 꼭 성취될 것입디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賤妾이 歌舞나 花柳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책과 필묵을 준비하여 公子께서 학업에 전념하시도록 해서 입신토록 하겠읍니다. 천첩이 色情을 탐해서라면 하필 가난하고 미치광이로 소문난 도련님을 택하겠읍니까? 도련님께서 몸을 상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겠사오니 이 점 염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일타홍의 진단이 맞아 떨어져 그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심희수는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다.

일타홍의 진단이란 심희수를 색에 주린 사나이로 보고, 그것을 조절해 준 것이다. 그러고보면 앞에서 설명한 유럽 의사의 고찰이 허무맹랑한 외고집이 아니며 정상적인 性生活이 건강은 물론 正常生活을 영위케 한다고 해석한 한국인의 性醫學이 제법 과학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기생이 왜 필요하며, 기생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되지 않는가.

또 다른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옛 한국인들은 夫婦 合宮日이 정해져 있었다. 吉日은 고작 한달에 이틀쯤이다. 게다가 부부 어느 쪽이라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合房하지 않는다. 몹시 추운 날, 반대로 몹시 더운 날, 슬프거나, 흥분된 날, 흐린 날도 피한다. 대체로 겨울엔 房事를 꺼린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식, 총명한 자식, 유순한 자식, 효성스러운 자식이 그런 조건인 날에는 잉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月 1回도 채 안 되는 情事인데다가 그나마 快味를 除外시켜야 하므로 점잖은 남자라 하더라도 굶주린 늑대일 수밖에 없었다. 더우기 外方 꽤리는 가족동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에 禁慾이 불가피했다. 금욕이 얼마나 나빴는지 잘 알았던 한국인들이 美女에게 房中秘術을 훈련시켜 활용한 사실은 실로 지혜롭고 당연한 것이었다.

망나니가 장가들더니 유순해지고 부지런해 졌다지!

話題

最初의 民間주도 商業型 올림픽

새 方式으로 치르게 될 LA 五輪…준비 本軌道에

돈 잘돌려대는 보브·호프 委員으로 起用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2년뒤의 대회를 앞두고 급피치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政府 지원이나 稅金의 도움은 일체 사양하겠다』고 선언, 완전한 민간주도의 비장한 결의로 스타트한 史上최초의 새로운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제 남은 문제는 日本과의 텔리비전 放映權 비용문제정도. 공산권이나 발전도상국의 올림픽을 국가주도의 國威發揚型이라고 한다면 LA올림픽은 대차대조표 重視의 商業型. 그것만으로 商業主義 過多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현지에서 보면 LA 올림픽은 그것만으로도 멋지게 궤도에 오른것이 확실하다. 어쨌든 이러한 타이프의 올림픽을 비판한다면 역시 미국인에게 앞선다고 말하지는 못할것이다.

◇赤字내면 떠맡겠다

예컨대 62명의 중역진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올림픽을 개최하되 손해가 나면 전원이 떠맡는다는 각오가 돼있다.

손해를 떠맡는다 해도 대상은 올림픽이다. 정대로 실패는 허용할수 없는 일이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LAOOC)의 한 위원은 위원회 발족 당시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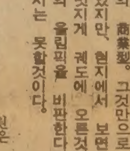
日本이 나고야(名古屋)을림픽 유치에 실패했으면서도 관계자 이외에는 그다지 실망하지 않는것처럼 선진국의 올림픽에 대한 열의는 전보다는 약한 편이다.

LA의 경우에도 올림픽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그 비용 부담문제 때문에 일부층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거창한 祭典을 거국적으로 치른 모스크바 五輪으로부터 1백80도 전환한 완전 민간 주도의 五輪이 지금 맹렬히 추진되고 있는것이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이상 重役진 한사람 한사람에게 특별한 이용가치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중역진에 캘리포니아大와 南캘리포니아大의 총장을 각각 가담시킨것은 올림픽村으로서 두 대학의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부족한 경우 두 총장의 책임으로 숙소를 증설하는것도 포함돼 있다.



◇뉴베로스 LA OOC위원장.

다저스의 사장이 참가한 턱분에 야구의 시범경기는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무료로 공개된다.

희극배우 보브·호프를 기용한것은 돈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비, 그의 돈 돌려대는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다.

그밖에 흑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몇명은, 각연회등에서의 선전가치가 높다고 평가돼 참가시켰다.

이러한 위원 가운데 정치인을 한사람도 넣지 않은 것은 앞을 내다 보는 시적의 소치일지도 모른다. 모르는 사이에 묘한 이해관계가 결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위원의 한사람은 전하고 있다.

위원은 전원 무보수인데다가 필요경비지불에 대해서도 25달러(원화 1만8천원)이상의 식사는 인정치 않고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더라도 25달러 이상은 위원회에 전네주지 않으면 안된다.

◇지원자도 1萬名 넘어

LA대회에서 열리는 21종목의 경기종목마다에는 위원장이 한사람씩 취임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명예직일뿐이다.

그밖에 LAOOC에 속하는 유급직원 5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몬트리올이나 모스크바가 처음부터 2천5백명도 넘는 고용원을 둔것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다.

대신 시민이 맡는 무보수 상담역이 1천명을 넘는다. 내년에는 무보수 통역등 6천명을 고용, 준비에 들어가는데 지원자 신청이 이미 1만명을 넘고 있다.

20개 경기 시설가운데 17개는 이미 모든 시설들이 완료됐다. 부족분은 이룰테면 수영풀의 경우, 맥도널드社가 스폰서가 되어 캘리포니아대학의 부지에 4백만달러(원화 28억원)를 투입해서 건설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동대학에 기탁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자전거 경기장은 세븐·일레븐 회사가 건설을 맡고있는데 이것도 추후 아마추어 자전거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서 현재의 收支전망을 대략 살펴보자.

수입은 스폰서가 협찬금을 내는데다가 自社 제품을 무료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벌 마크등의 사용을 허가했는데 이 수입이 1억1천1백만달러. 日本에서는 플라자工業이 최초로 결정됐는데 타이프라이터 1천대를 보도센터에 제공해서 전세계 기자들이 사용하게 한다.

플라자측은 여기서 대단한 선전효과를 거두게 되고 대회 뒤에는 타이프라이터를 LA시내의 각학교에 기증할 예정이다.

입장권 매상액 9천2백만달러. 당초에는 각경기 당 평균 18달러(1천3백원)로 5백만장을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보통권은 12달러(8백50원)로 내려서 6백만장으로 늘렸다.

그와 관련시켜 LA地區에 있는 호텔 객실 14만5천室 중 일류인 1만5천室에 대해 계약을 마쳤다. 그 뒤에도 5천室이 추가되지만 이 방들은 개최 6개월전의 요금으로 방을 제공하도록 하는 대신 1베드당 입장권 2장씩을 호텔측에 제공한다. 만일 이렇게 해서도 수용능력이 부족하면 民家의 1할을 민박처로 지정할 예정이다.

TV放映權 先拂받아 利子收入 경비충당

텔레비전 放映權料. 미국의 ABC-TV에 2억2천5백만달러로 독점방송권을 주기로 했지만 TV의 경우는 설비 비용을 제하고 난 비용의 3분의1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LAOOC에는 나머지인 3분의2가 들어온다.

게다가 선불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 그 이자 수백만달러로 제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밖에 공산권을 제외한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1천9백80만달러로 결정했다. 日本의 경우는 1천5백만달러 내지 2천만달러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방송료 외에 LAOOC측은 기념주화 발행계획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예산도 당초의 3억6천8백만달러에서 4억5천만달러로 수정했다.

수입 예상이 완전히 맞으면 나라에게도, 市에게도 세금을 지지않고 대회를 성사시킬수 있다고 LAOOC측은 강조하고 있다.

예초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던 소련의 보도 보이코트도 없을 것 같고, 中共도 참가할 것이다. 경기종목도 공전의 규모가 될 것이다.

당초, 냉담했던 시민들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순풍에 돛단 격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LA올림픽은 장래의 올림픽운영에 새로운 方向提示를 하게 될 것 같다.

<外紙에서>

◇84년 LA올림픽은 史上 최초로 정부나 세금의 지원이 없이 완전 민간주도로 열게 된다. (84년LA올림픽상상도)

바티칸 市國

최고 指導者는 절대 存在인 敎皇

바티칸은 세계유일의 敎皇國이다. 넓이래야 0.44㎢, 인구도 1천명이 못되는 작은 나라다. 위치적으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시내 西北部에 있어「도시안의 도시」에 불과하지만 어느면에선 이탈리아 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과시한다. 바티칸宮과 라테란宮 지역외에 따로 떨어져있는 교황의 여름별장 지역인 카스텔간돌포 마을을 영토로 삼고있다. 이 외에도 로마시내의 13개 행정사무용건물이 엄연히 바티칸 治下다. 이런 바티칸市國의 주권은 1929년 카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 수상 뭇솔리니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條約에 의해 보장됐다.

이나라 元首는 가톨릭교회의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교황이며 立法·司法·行政의 三權이 모두 그에게 귀속되는 만큼 절대적 존재다. 교황은 바티칸市國의 원수이기에 앞서 7억3천만 세계가톨릭교도의 영적 지도자다.

실제 행정은 國務長官이 맡는다. 그러나 바티칸의 치안과 질서유지는 스위스군 경비대가 맡는다. 바티칸국민은 대체로 성직자들과 영구고용인및 그 가족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電話局·우체국·라디오放送·은행을 갖고 있다. 通貨는 이탈리아「리라」가 통용된다. 나라가 작고 생산성있는 토지가 없으니만큼 식량·물·전기·가스및 일체의 소비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은 그렇게「小國的」인것만은 아니다. 세계도처에 걸친 막대한 해외투자와 부동산·기부금 운용사실이 새어나와 세인을 놀라게 하곤한다.

한국과는 63년 정식외교관계가 수립된뒤 大使가 상주하게 되었다.

房術師

한국의 妓生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性을 節慾補精하기에 따라 妻生 혹은 不老長壽하며, 性行爲에 따라 유순하고 총명한 자식을 얻는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한국인의 思考觀念에서 妓生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性醫學觀念에 부합되게시리 妓生이 房術을 익히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생은 房術師들이었다.

♣세 천치

房事를 외면한 사람들을 비난한 글이 있다.

성현은 그의 文集(慵齋叢話卷二)에서 다음과 같이 비웃었다.

식욕과 색욕은 인간의 본능인데도 지금 색을 모르는 사람이 셋 있다. 齊安大君은 참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지만 늘 『부녀자는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끝내 부인과 마주 앉지 않았고, 生員 韓景琦는 上黨府院君(韓明澮)의 손자인데 마음을 닦고 성품을 다스린다는 구실로 혼자 문을 닫고 앉아 지낼 뿐 아내와 대화를 나눈 일이 없는데다가 만약 여종의 목소리라도 들리면 막대기를 들어 내쫓았다.

그리고 金子固가 외아들을 두었는데 어리석어서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하였고 또한 陰陽을 알지 못하므로 後嗣가 끊어질것을 염려하여 그 일을 아는 여자를 단장시켜 합께 자게 하고 雲雨(男女의 交情)를 가르치려 하였으나 그 아들이 놀라 상밀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뒤로는 붉게 단장하고 족두리 쓴 여자만 보면 달아났다.

그러기에 良家집일수록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운우의 즐거움을 모르면 인간적으로 매우 불행할뿐 아니라 후사를 잇지 못하므로, 후사를 잇지 못하면 커다란 不孝요, 죄악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와 머슴이, 딸은 어머니와 유모가 이론과 실기를 가르쳤다.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았더라도 실습을 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못하므로 年少輩일지라도 妓房 출입이 묵인되었다. 기생은 한국 남성의 성교육 실습교사였다.

따라서 기생은 뛰어난 房術師이게 마련이었다. 그런 실례가 있다.

♣老妓의 판결

雙泉 成汝學(生沒年代未詳·別坐)이 公山에 놀러갔다. 甲과 乙 두사람이 陰陽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甲이 『사내의 그것이 크면 여인이 반드시 매혹되네』하자, 乙이 『그렇지 않아. 여인을 매혹시키는 것은 다루는 기술에 달려 있지 그것이 크고 작은 것과는 상관이 없네』하면서 서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甲이 성여학더러 『선생께서 한 말씀 하셔서 우리 논쟁을 결판 해주십시오』 했다.

『내가 여자가 아니니 여자의 일을 알 수 있겠나. 그렇지만 옛 사람의 경우를 말해보려오. 司馬遷의 〈呂不韋傳〉을 보면, 「여불위가 그것이 큰 자를 구하려던 참에·嫪毐이라는 사람이 그의 그것에 구리바퀴를 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太后가 그를 불러다가 通情한뒤 깊이 사랑하였다」 하였고, 그밖에 다른 故事를 보더라도 모두 큰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며 나는 甲의 의견이 옳다고 보온」 하였다. 성여학의 말에 甲은 기뻐했지만 乙은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마침 老妓가 일행 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성여학이 그를 불렀다. 甲乙 두 사람의 논쟁을 설명하고, 『이 논쟁은 남자가 판정할 일이 못되는데다가 자네는 남자 경험이 많고 房事에 관한 지식이 많을테니 의견을 말해보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老妓가 웃으면서 『그것은 제가 마음속으로 진작부터 가지고 있던 바니 한마디 올리지요』 하더니 乙을 쳐다본다.

『커다란 그것이 陰에 꽉 차면 女情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선생께서는 香閨의 여섯가지 보배를 아마 모르시는가요?』

그리고는 房術師답게 여섯가지 보배를 윈다. 一 興, 二 濕, 三 頭大, 四 長, 五 健作, 六 遲畢.

기생은 또 이어서 『실로 頭大한것을 깊이 십어서 오랫동안 희롱하면 그것이 바로 九千洞이 半값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돌아가셔서 큰 고기를 구하여 한꺼번에 드시지요. 그 맛이 雄深함을 아실겁니다.』

그제서야 乙의 말문이 막혔다. 〈續禦眠楯〉

老妓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알길은 없으나,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기생이 고도의 房術師들임을 알지 않는가.

그러나 이보다도 〈禦睡新話〉(張漢宗著·1768~?·畫家)에 실린 이야기를 보면 기생이 얼마나 뛰어난 房術師였는지, 그리고 弊害가 컸음에도 왜 1천년간이나 存置시켰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

平安道에 근무하던 文官이 서울본부 都事로 전임되어 길을 떠났다. 그런데 단 말이 흔들리어 몹시 곤욕스러웠다. 及唱(下人)이 민망했던지,

♣첫 房外犯色의 기쁨

『驛長을 범하셔야겠읍니다. 그냥 있다간 앞으로 갈아 탈 말도 이 꼴일테니 쇤네가 여쭌대로 혼을 내야 편안히 여행하실 겁니다.』

도사가 그러라 하였다. 그랬더니 급창이 그 역의 兵房을 불러다가 꾸짖는다.

『도사가 행차하시는 말이 어찌이처럼 노둔하냐. 냉큼 다른 말로 바꿔라.』

齊安君은 美妻를 두고도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않아

역졸이 곧 駿馬로 바꾸어 왔다. 도사가 서울을 왕래한 적에 살말을 타기도 하고 남의 말을 빌어 타기도 했지만 일찌기 타보지 못한 준마였다.

며칠만에 어느 고을에 닿았다. 수령이 茶果를 내오고 수청 기생도 데려왔다. 도사는 기생을 겪어본 일이 없던터라 깜짝 놀라,

『붉은 치마를 두른 저 여자가 왜 왔느냐?』

『기생입니다.』

『그 기생을 무엇에 쓰는고?』

『잠자리에 같이 들면 좋지 않습니까.』

급창의 말에 도사가,

『그래? 이미 결혼하여 지아비가 있을텐데 말썽이 있지 않겠느냐?』

『고을마다 기생을 둔 것은 손님 侍寢을 위해섭니다. 서방이 있더라도 감히 어쩌지 못합니다.』

『그럼 좋아, 좋아.』

도사가 급히 급창을 때리고 堂으로 오르다 곧 기생을 부른다.

『하찬한 계집과 한자리에 앉으면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宰相이나 士大夫들도 기생과 동침합니다. 기생이 마루 아래에 누워 있고 사또께서는 마루 위에 누워 계시다면 行房이 되겠읍니까?』

급창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도사가 기생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치 닭이 개를 보듯, 개가 닭을 보듯 하면서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러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도사가 고개를 숙이곤 하였다. 밤이 꽤 깊었다. 답답하게 여긴 기생이,

『도사께선 房外犯色이 없으신지요?』

『아내는 늘 집안에만 있었다. 설사 뒤따라가서 잠시 문규에 나더라도 어찌 뒤따라가서 논·밭두렁이나 들판에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옵고 아내아닌 사람과 동침한 일이 있는가를 여쭙는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벌컥 화를 낸다.

『상말에 「내가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면 남도 나의 아내를 도둑질한다」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했겠느냐?』

기생은 어이가 없어 다시는 말을 건네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쓰러져 깊은 잠에 휘감겼다. 도사가 잠든 기생을 바라보노라니, 숨소리가 잔잔하고, 蠶蛾처럼 생긴 눈썹은 아름답고, 분치장한 뺨은 희맑고 앵도같은 입술은 娟娟하여 어느새 정열이 이글거렸다.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들여다보다가 기생을 껴안았다. 기생이 놀라 깨어 손을 흔들면서『도사님, 도사님, 이게 어인 일이셔요』 하였다. 『사양하지 말라. 급창이 그러는데 기생은 손님과 동침한다더구만.』

기생은 속으로 웃음이 치솟았지만 곧 서로 雲雨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런데 도사는 房外犯色이 처음이어서 부끄러움을 머금었기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수족이 떨리는데다가 잠자리가 물차듯 급히 마치므로 기생은 『만일 흥취를 흡족하게 한다면 좋은 구경거리일꺼야』하고는 다시 도사를 껴안았다. 이번에는 갖가지 재주를 동원하여 입을 맞추고 혀를 핥고 체질하듯 흔드니 도사가 혼비백산하여 몸을 가늠하지 못했다. 화가 나서 긴 목소리로 급창을 불렀다.

『妓生 次知하는 兵都長을 속히 잡아오라.』

급창이, 병도장은 역에 있지, 기생 차지는 首奴라하여 수노를 잡아왔다.

『너희들이 行次所에 기생을 대령하려거든 손님을 조용히 모실 기생이어야지 않겠는가』

하고는 수노를 곤장치라 하였다.

그러자 수노는,

『저는 기생 차지이므로 얼굴의 아름다움을 살펴 守廳토록 한 것인데 寢席에서 흔드는 버릇이야 알수가 있읍니까. 정말 쇤네에게 그것으로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를 본 行首妓生이 앞으로 나아가 조아린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말등이 불편한 것은 말의 네 발굽에 병이 생긴 탓이지만 기생의 움직임은 搖本이라는 재주입니다.』

우두머리 기생의 말을 듣고서야 도사는 고개를 끄떡거렸다. 하인들이 모두 물러갔다.

도사가 다시 기생을 껴안았다. 그러나 기생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도사는 그것이 흥미를 돋구는 방법임을 알았다.

그 이튿날, 일어나 몇번이고 뒤통수를 치면서 뒤늦게야 그것을 알았다는 후회스런 표정을 짓는다.

『30년동안이나 아내와 살았지만 그토록 절묘한 재미를 몰랐군』하고 중얼거렸다.

都事의 말마따나 30년만에 처음으로 房術師를 만남으로써 희열을 얻었다. 이처럼 기생은 뛰어난 방술사들이었기에 존재가치를 인정받았고, 남성들은 그들과 교유함으로써 不老長壽의 지혜와 쾌락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 남자들이 기생제도를 폐지할 리 있겠는가. 더군다나 벼슬아치는 돈 한푼 안들였기에.

그렇다고해서 기생을 노리개라 속단하고 그들을 가볍다 동정하지 말자(後述). 단지 아내들이 서글펐었다. 남편이 妓生에게서 배운 房術을 전수한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와 快味서린 行房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현대 여성들이 좋은 세상에 산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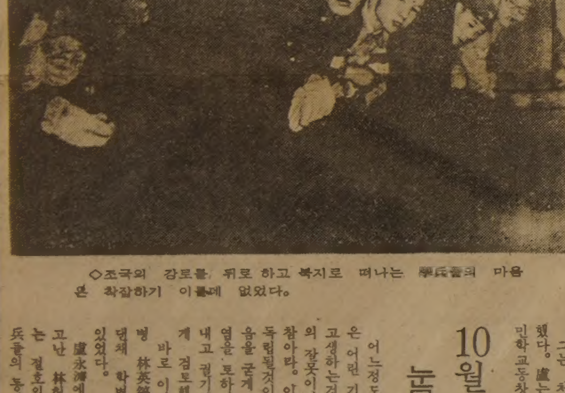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바로잡음〉

지난 3일자(수) 주간한국 첫면(P8)의 「평양학병사건 '탄약·무기고 격파하라'」 기사중 하단 오른쪽 면은 조판과정에서 상단 왼쪽 면과 중복되었기에 이 면과 바꿉니다.

10월1일 秋夕날 0時기해 作戰개시키로

눈물 흘리며 協力 맹세했던 보조憲兵 林英鎬가 背信·密告



◇조국의 강토를 뒤로 하고 북지로 떠나는 學兵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었다.

금을 떠난 1對1의 대결이라면서 결투를 걸어왔다. 崔의 체구는 작지만 딱 벌어진 당수2단의 猛者였다. 崔는 단발에 일인 상관을 녁 아웃시켜 버렸다.

조선사람이 일인상관을 때려뉘었다는 무용담은 삽시간에 주변 마을에 퍼졌다.

그러던 수일만에 한 여성이 崔某를 찾아왔다. 그여자는 崔의 고향친구 金漢福의 누님이었다. 마을에 퍼진 무용담의 주인공이 아무래도 예소한 崔로 예감이 들기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 여인의 주선으로 金漢福을 만나게된 崔는 학병들의 계획을 터놓고 얘기하며 협력을 부탁했다. 金漢福은 赴戰高原과 國境지대를 누비며 伐採를 하고있는 그 일대의 지리에 아주 밝았다.

金은 의거에 가담할수있는것이 榮光이라면서 길안내역을 수락,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병들의 설레는 마음은 벌써부터 추석 밝은 달밤에 무기고를 폭파하고 제1집결지로 달리고 있었다.

그 길은 험난하나 바로 朝鮮독립을 찾는 영광의 길이 아닌가.

그때 平壤47부대(砲兵聯隊)에는 천성이 쾌활·명랑한 延禧專門출신 盧永溥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거사에 가담했다. 盧는 어느날 우연히 국민학교동창인 林英鎬를 만났는데 林은 일반지원병으로서 그때 보조헌병上等兵이었다.

그는 10년만의 盧와의 相逢을 기뻐하면서,

『너는 부자였고 대학까지 다닌 사람인데 이거 참 거지꼴이구나. 대학생들 마저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을보니 일본놈들도 망조가 된거야』고 투덜대더니 뭐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자청했다.

〈피는 어쩔수 없구나!!〉

그후 만날때마다 이렇게 생각한 盧는 林을 믿을수있는 사람으로 신용하고 헌병인 그를 거사에 끌어들이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다른 동지들에게 의논도 없이 林에게 擧事計劃을 털어놓았다.

—이것이 결정적실수였다.

林은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盧의 손을 잡으며 협력할것을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총책임자인 金完龍등은 船橋里에 있는 조선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평소의 울분을 토하고 있었는데 그 음식점은 이미 수차 밀회를 했던 믿음만한 집이었다.

어느정도 술이 오르자 그들은 어린 기생들에게 『너희들이 고생하는것도 모두 이 오빠들의 잘못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라. 이제 곧 우리朝鮮도 독립될것이니 그에 대비해 마음을 굳게 가져야한다』고 기염을 토하다가 기생들을 내보내고 궐기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점토했다.

바로 이때 옆방에는 보조헌병 林英鎬가 벽에 귀를 바싹 대채 학병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盧永溥에게 거사계획을 듣고난 林헌병은 일본에 충성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 學兵들의 동태를 계속 내사했다.

盧永溥에게 눈물을 흘리며 협력을 맹세했던 林英鎬는 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때 참모장격인 朴性和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연락을 받고 咸興에서 달려 온 중학동창 金昌厚와 같이 大同江변 乙密臺를 산책하면서 만일 궐기에 실패했을때의 대비로 동지들이 은신할 곳을 咸南 新浦앞바다에 있는 馬養島로 할것을 상의하고 있었다.

겨울 明太잡이철의 新浦항 일대는 사람들의 출입이 많아 숨기는 가장 알맞은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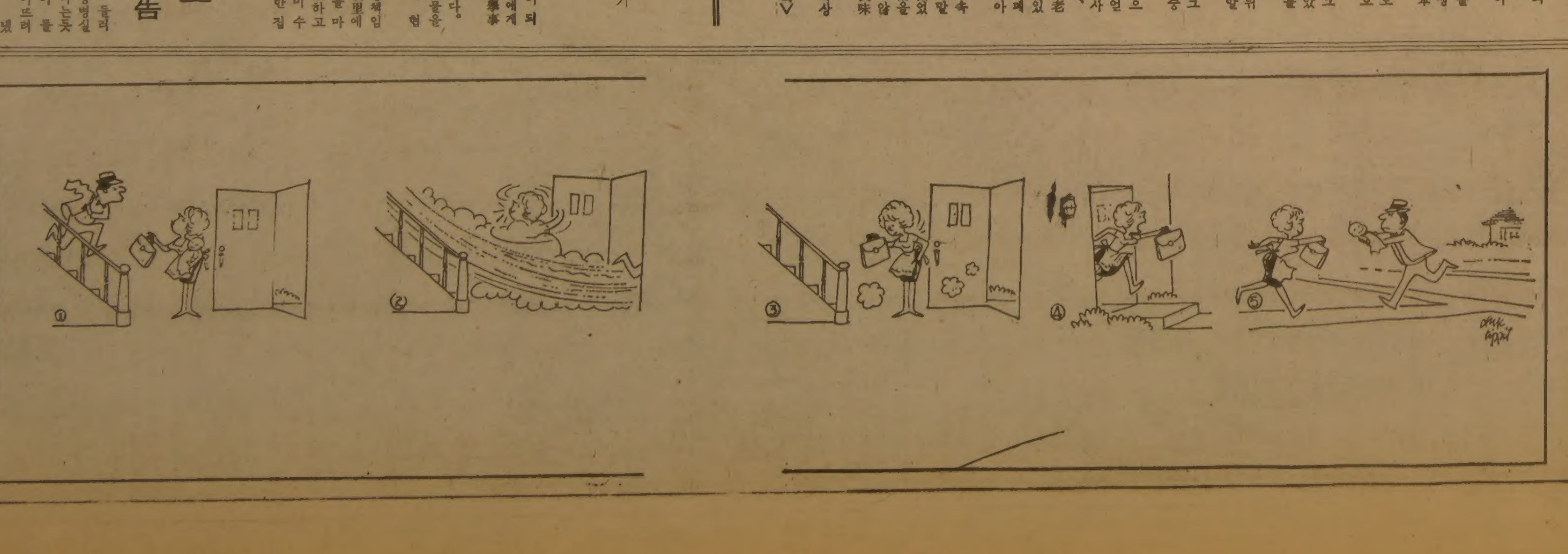
朴性和는 동지들과의 연락 때문에 秋乙陸軍病院에 들러야 했다. 朴이 막 2층병실에 오르려는데 기다렸다는듯이 좇아나온 한 간호원이 들고있던 링게르병을 떨어뜨려 마룻바닥에 산산조각을 냈다.

그 간호원은 『어서 오라』고 朴에게 손짓했다.

그녀는 연락책임 韓간호원이었다.

朴이 다가섰더니 韓간호원은 『헌병이 입원한 학병동지를 체포해 갔어요. 어찌된 일이죠? 나는 무슨일을 당하든 입을 열지않겠으니 안심하세요.』

해외 걸작 만화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건강, 사업, 결혼, 애정문제에 걱정이 있으신 분은 지금곧 "마리수"를 찾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것입니다.
☎ : 463－9138

스토아 캐쉬어 구함.
(영 × 에그린톤)
☎251－7031(5시 이후 연락바람)

경험있는 바느질및 재봉사구함
나일론스포츠옷감임
신청 : 42 GLADSTONE AVE. (퀸×더프린)

FLOOR LADY 또는 MAN구함(수퍼바이저)
스포츠옷 공장에서 일을 보실 능력있는 분
위치 : 퀸×더프린
신청 : 42 GLADSTONE AVE.
전화 : 537－0400
신청시간 : P. M. 5 : 00－7 : 00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Mr. 한

주방일 도우실분 구함.
☎532－2727

경험있는 남자 헬퍼구함.
(Full 타임)
☎597－1115(Mr. 박)

번역, 통역 :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안 통역해드림
☎ : 281－1677 이 영 화(전대학강사)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서 쪽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사고자 함.
파 실분 연락 바람.
☎ 749－9649 Mr. 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 5,200 ☎298－7635(Mr. 정)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7,000, 렌트 $700(월), (2 베드룸 아파트포함) 포함), 리스 5년+5년 옵션, 아스킹 $70,000+스탁.
☎ : 769－5956

자동차 급매, 75년형 로얄 모나코 A-1 콘디숀.
3~4년은 아무 이상없이 탈 수있음. 가격 $ 950
☎ 530－1491

"집을 팝니다"
○ 4베드룸, 쎄미 디태취 백 스프레이
○ First 몰개지 10.25% $31,000 (Aug. 83)
○ 가격 $79,900
○ 미시사가 지역.
☎(B)752－6702, (R)275－1499(Mr. 박)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8,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하이웨이 24, 89, 10(SHELBURND)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붙은 가스 스테이션, 코너위치, 년매상 100만달러, 총수익 10만달러, 순수익 6만달러, 권리금 6만달러+스탁, 곧 몬트리얼 은행이 개점하므로 더욱 매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위치임 ☎ : (519) 925－5210
MRS. 윤, 오후3시 이후연락바람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소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섭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잊지 마십시오?

에어콘·히팅·냉장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8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8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자동차수리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재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동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6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3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기 타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美軍2萬 팀스피리트 파견
本土·太平洋서 差出

【워싱턴3日聯合】 태평양지역및 미본토배치 미군약2만명이 오는13일부터 2주간 계속될 한미합동「팀스피리트」82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될것이라고 미국방성이 3일 밝혔다.

【東京3日AP=聯合】 일본남부 오끼나와에주둔하고있는수천명의 미해병들이 오는13일부터 한국에서실시되는 한미합동훈련「팀스피리트82」에참가할것으로 3일 발표됐다.

오끼나와주둔미군대변인은 오는13일부터 4월26일까지 계속될 이 훈련이 한반도의 우발사태에 대비, 양국군의 병력배치·수용능력을 시험하는데 목적이있다고 말했다.

流星의 賦
風雅와 策謀 ㉜
<30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그 밖에도 묘기가 속출했지만 뭐니뭐니해도 만장을 탄복케 한 것은 홍제남의 기량이었다.

제남은 군모와 군복으로 정장하고 말을 타고 마장(馬場)을 질구(疾驅)하면서 대역무도사악귀(大逆無道邪惡鬼)라고 쓴 푯말을 북쪽 1각에 걸어놓은 일시(一矢)에 일자식(一字式) 순서대로 쏘아 맞히는 것이다.

제일시(第一矢)는 범사로서 앉은채 대자(大字)를 관통하고, 제2시로선 입사(立射)로서 말등위에 서서 역자(逆字)를 관통하고, 제3시로선 후사(後射)로서 뒤돌아보는 자세로서 무자(無字)를 관통하고, 제4시로선 복사(伏射)로서 머리를 누인채로 쏘아 도자(道字)를 관통하고, 제5시로선 앙사(仰射)로서 몸을 말의 복부로 옮겨 사자(邪字)를 관통하고, 제6시, 제7시는 각각 측사(側射)로서 몸을 말의 좌측, 우측으로 붙여 악자(惡字)와 귀자(鬼字)를 각각 관통했다. 그리고서 일시(一矢)가 남은 것으로선 마장을 2, 3회 하며 공중 일각의 표적을 찾아 높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는데 그 때 하늘에서 날고 있던 새 두마리가 하나의 화살에 꿰어 땅에 떨어졌다.

만좌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고 갈채와 박수소리도 없었다. 제남이 동문으로 가서 말을 내리자 비로소 천지를 진동하는 아우성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때 홍제남 곁으로 배반에 차수(茶水)를 얹고 총총걸음을 치는 미녀가 있었다.

『갈증을 푸소서』

돌아보는 제남의 눈 앞에 지난 추석 기원에서 만난 오꾀이의 청아한 모습이 있었다.

『고맙소』

제남이 식은 차수를 들어 마셨다.

『어찌 그렇게 무심하오이까』

오꾀이의 눈에 원망하는 빛이 있었다.

『내 사명이』

제남이 변명하려 하자

『오늘밤 기다리겠사옵니다』

하고 오꾀이는 물러갔다.

이윽고 히데쓰구가 관람대에서 내려와 제남의 옆에 섰다.

『홍공의 기예 참으로 신기(神技)라고 할 수 있소이다. 저리로 같이 가실까요?』

히데쓰구의 인도로 관람대로 올라간 제남은 상관 황진의 미소를 받았다. 황진은 관람대의 한쪽을 사신들과 같이점령하고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정사 황윤길도 부사 김성일도 없었다. 허성과 차천락 몇사람이 나와 있었다. 히데쓰구는 제남과 그 밖의 출연자들의 무예를 극구칭찬하고 제남에겐 황금백장, 다른무인에겐 황금 30장을 선사하겠다고 하여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연석에 초청되기도 했는데 황진이하 조선의 사신들은 이를 사양했다.

그러나 홍제남은 히라도를 통해서 전달된 오꾀이의 청만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제남은 그 자리에 그날의 수훈자 고청남, 배명영, 조인식등을 대동했다.

오꾀이 역시 그의 동배 수삼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날 밤의 연회는 조선의 영걸(英傑) 일본의 미녀가 상환(相歡)하는 화려한 꽃밭이 되었다.

이때의 홍제남의 시흥(詩興)!

정주여몽이방추(情酒如夢異邦秋)
심재황홀난명정(心在恍惚難酩酊)